

2015.09 Vol.9
Pu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NEWSLETTER

부산대학교 경영대학
효원경영

biz.pusan.ac.kr

PUSAN
NATIONAL
UNIVERSITY



NEWSLETTER

Pu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2015 SEPTEMBER VOL.9

효원경영

발행일 2015. 09

발행처 부산대학교 경영대학

발행인 최중서

전 화 051.510.1659-60, 1678

<http://biz.pusan.ac.kr>

팩 스 051.581.3144

편집장 김지은

편집원 이나현, 임현기, 김태일

디자인 더블비전

Contents

Greeting

04 글로벌 경영인재를 위한 교육, 창의적 경영 리더 교육 | 조영복

News Brief

06 주요 뉴스 | 교수 동정 | 장학 | 대학 행사 |
학생 수상 | 국제 관련 | AMP | 동문회

Interview

16 IAMSTUDENT 디자이너가 된 경영학도 | 박준현
18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 김동욱
22 AMP 65기 회장 | 김중오

Professor's Hobby

26 코카콜라 컬렉션 | 김창호

Column

28 MOOC으로 창조하는 1인 대학교 그리고 빅북(Big Book)운동 | 조영복
30 이제는 중소기업에 도전하여야 한다 | 이종진

Participation

32 애플레이드 대학교에서의 교환학생을 마치며 | 최영임
34 제1회 영남권 경영세미나 BIB(Be-in-Business)참가수기 | 이성균
38 2015년 경영대학 동계 탐방 경진대회 수상수기 | 강은혁

Zoom In

42 부산국제금융센터 BIFC

Development Fund

47 경영대학 발전기금

Editor's Comments

54 편집후기



글로벌 경영인재를 위한 교육 창의적 경영 리더 교육

경영대학(원)장 조 영 복

존경하는 경영대학 및 경영대학원 교직원, 학생 그리고 동문 여러분,

오늘 저는 경영대학장과 경영대학원장을 겸임하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학을 대표하여 이끌어주신 최중서 직전 학장님을 비롯한 역대 학장님들과 불철주야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하여 연구와 학생지도에 여념이 없으신 교수님들과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 세계 각국에서 국가와 기업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동문 여러분과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경영대학(원) 재학생 여러분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경영대학은 60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

는 한국 최고의 대학인 부산대학교 상과대학의 주체로서 5년 전 새로운 발전과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분리 독립된 경영연구와 인재 양성의 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난 기간의 성장을 바탕으로 독립된 경영대학으로서의 명실상부한 면모를 갖추고 도약을 위한 건실한 토대를 마련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러나 학내외의 여건은 그리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학령인구의 감소와 대학재정의 축소를 비롯한 국내 환경의 변화들은 대학발전의 현실적인 걸림돌도 다가오고 있으며, 날로 치열해지는 대학 간 국제경쟁과 MOOC를 비롯한 고등교육 방법의 혁신은 우리 경영대학(원)이 서둘러 대비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효원 경영가족 여러분,

제4대 경영대학장을 맡은 저는 이러한 국내외의 변화들을 도전을 위한 기회로 삼아 아시아는 물론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영대학(원)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대학이 산업화시대에는 누구나가 부러워하는 명문 상과대학이었지만, 그동안의 중앙집권적 교육정책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보화를 넘어 네트워크화된 지금의 세상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는 새로운 대학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과 참여를 요구하는 새로운 대학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고 새로운 경영대학(원)의 미래를 꿈꾸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대학은 무엇보다도 먼저 대학교육의 질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기술이 혁신적으로 변해가는 고도 정보화 사회인 네트워크 사회는 산업사회와는 다른 창조적인 융·복합적 인재의 양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경영대학(원)의 인재양성도 다양한 기초학문에 대한 통섭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영의 이론과 실천에 대한 기업가정신의 함양도 자본주의 4.0으로 대변되는 참여적이고 따뜻한 자본주의 정신과 함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교과과정을 개편하는 한편, 창업을 위한 대학기업가 센터를 유치하는 등 새로운 시대의 변화와 교육수요를 담아내는 경영대학(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경영대학(원)은 명성에 걸맞게 세계적인 경영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할 국제적인 수준의 연구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국제적인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인재양성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교류를 활성화함을 물론 국제수준의 연구기관을 육성하고 차별적인 연구주제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첨단 교수 기법이 활용될 수 있도록 경영대학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확충하는 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연구수준의 향상과 국제화는 결코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제는 아닐 것입니다. 먼 길을 나서는 심정으로 우리 대

학(원)이 금융중심 부산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경영연구소를 비롯한 연구기관을 활성화하고 국제학술대회를 지원하는데도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대학(원)생들의 국제교류를 위한 지원제도도 새롭게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대학은 상아탑에만 머물러 있는 대학이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ISO26000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책임성을 가지고 윤리적 행동을 실천하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존중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와 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사회책임 활동을 통하여 우리 경영대학(원)의 인지도를 높여 지역에서부터 친 경영대학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영대학원은 특히 지역기업가들의 역량 함양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업경영에 대한 최신이론과 국제동향을 공공기관을 비롯한 지역기업인들과 공유하며 다양한 경영교육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개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효원 경영가족 여러분,

우리 경영대학(원)은 이제 더는 물러날 곳이 없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단 하나의 선택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과거는 화려했고 미래의 꿈은 원대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 현실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경영대학(원)이 아시아 Top 10을 넘어 Global 100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도전을 스스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영대학(원)이 글로벌 경영인재를 위한 교육과 연구의 허브로, 그리고 창의적 경영 리더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효원가족 여러분의 성원과 동참을 기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9월

Main News 주요뉴스

「사회적 기업」과목 한국형 무크(K-MOOC) 선정

‘2015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참여대학’에 선정

부산대가 지역 종합대학으로는 유일하게 ‘2015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참여대학’에 선정됐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4월 16일 대학의 우수한 강좌를 인터넷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한국형 무크(K-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 시범운영에 참여할 기관으로 부산대 등 10개 대학(총 27개 강좌)을 선정·발표했다. 평가는 기본여건, 콘텐츠 개발 계획, 강좌 운영 계획 등 3개 영역의 총 13개 지표로 진행됐다. 부산대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수월성 있는 이해와 정보 공유의 장이 될 조영복 교수의 「사회적 기업」 등 총 2과목을 개발해 선보일 예정이다. 부산대 등 10개 선정 대학에는 각 1억 원씩 총 10억 원의 강좌개발비가 지원되며, 향후 3년간 지속적인 정부지원을 통해 우수강좌를 추가 개발할 수 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에 선정한 대학 및 강좌 이외에 기존 KOCW(Korea Open Course Ware, 고등교육 학습자료 공동 활용 서비스) 183개 대학의 9,628개 강의 중 월 평균 다운로드 100건 이상으로 내용이 우수하고 활용도가 높은 약 10개 강의를 한국형 무크 강좌로 변환 개발해 탑재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 제공되는 한국형 무크(K-MOOC) 서비스는 우선 한국어(영어자막) 강좌로 진행되며 대학생, 직장인 등 관심 있는 누구나 자유롭게 접속해 무료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부산대-사회적기업연구원, 사회적기업 국제학술컨퍼런스 개최

「사회적기업 국제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각국 저명인사들 참여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와 사회적기업연구원(원장 조영복 부산대 경영학과 교수)이 공동 주최하인 2015 사회적기업 국제학술컨퍼런스(www.icse.or.kr)가 지난 5월 14일 부산 해운대 벅스코 오디토리움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사회적기업 국제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러시아, 미국, 프랑스, 베트남, 한국 등 저명인사들이 참여해 각국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미래, 사회적기업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사례 소개 등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조영복 사회적기업연구원장은 “부산대와 사회적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사회적기업 국제학술심포지엄은 사회적기업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국가들의 사례와 그 미래를 살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대는 (주)SK, BNK로부터 3년간 총 5억 5천만원의 재정지원을 통해 일반대학원의 협동과정으로 사회적기업전공을 개설하여 매년 10명의 석사과정생을 선발하고, 최소기준을 충족한 모든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영대학(원)장 이임식

지난 8월 26일 수요일 상남국제회관 문창홀에서 경영대학(원)장 이임식이 진행됐다. 이임식에는 최종서 전임 경영대학(원)장과 조영복 신임 경영대학(원)장, 강상훈 부원장, 옥석재 학과장, AMP 64, 65기 MBA 45, 46기 등 약 60여명이 참석했다. 2년간 제4대 경영대학(원)장을 맡을 조영복 교수는 아시아는 물론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영대학(원)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신임 학장을 중심으로 학내 구성원 모두가 마음을 모아 더욱더 비상하는 경영대학이 되길 바란다.

조영복 교수, 제4대 경영대학(원)장 취임



교수동정 Professor News

2015년 상반기 SSCI급 국제저널 논문게재실적



고광수 교수



김명종 교수



신종국 교수



엄철준 교수

1. 고광수 교수 (외 이봉수, 백미연, 하연정)의 “The Dynamics of Market Volatility, Market Return, and Equity Fund Flow: International Evidence” 논문이 국제재무관리분야의 SSCI 급 저널인 INTERNATIONAL REVIEW OF ECONOMICS & FINANCE (2015/1)에 게재되었다.
2. 김명종 교수 (외 강대기, 김홍배)의 “Geometric Mean Based Boosting Algorithm with Over-sampling to Resolve Data Imbalance Problem for Bankruptcy Prediction” 논문이 경영학분야의 SCIE 급 저널인 EXPERT SYSTEMS WITH APPLICATIONS(2015/2)에 게재되었다.
3. 신종국 교수 (외 박민숙)의 “A Taxonomy of Social Networking Site Users: Social Surveillance and Self-surveillance Perspective” 논문이 판매관리/마케팅분야의 SSCI 급 저널인 PSYCHOLOGY & MARKETING(2015/6)에 게재되었다.
4. 엄철준 교수 (외 박종원, Yong H. Kim, T. Kaizoji)의 “Effects of the market factor on portfolio diversification: the case of market crashes” 논문이 투자/위험관리분야의 SSCI 급 저널인 INVESTMENT ANALYSTS JOURNAL(2015/3)에 게재되었다.

김종기 교수,
한국정보시스템학회 최우수 논문상 수상

‘스마트폰 사용자의 보안수칙 실천 부족에 관한 연구 : 효능감의 역할을 중심으로’ 논문으로 최우수 논문상 수상

경영학과 김종기 교수(경영정보전공, 사진)와 소속 박사과정생인 김재현(13학번) 씨가 한국정보시스템학회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수상 논문은 ‘스마트폰 사용자의 보안수칙 실천 부족에 관한 연구: 효능감의 역할을 중심으로’이다. 이번 연구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보안신고사항 실천 부족에 관한 인식 메

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평을 받았다. 시상식은 5월 28일과 29일 이틀간 부경대 동원장보고관에서 열린 2015년 춘계 공동학술대회(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한국정보시스템학회/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에서 개최됐다.

김동일 교수,
국제융합기술컨퍼런스 최우수 논문상, ICDPM 우수학술상 수상

‘스마트폰 소비자의 선택 특성 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에 관한 논문으로 최우수 논문상 수상

경영학과 김동일(사진) 교수가 최근 일본 홋카이도에서 열린 2015년도 국제융합기술컨퍼런스(ICT·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vergence Technology)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김 교수는 ‘스마트폰 소비자의 선택 특성 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An Empirical Study on the Smartphone Consumer Choice Factors: Comparison of Korea and Chinese Consumers)’에 관한 논문을 발표해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번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의 선두자리에 있는 한국과 중국 시장의 수요 패턴에 대한 특성을 분석했다. 앞서 김 교수는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된

ICBE 2014(International Conference on Business and Economics)와 올해 1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ICDPM 2015(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gital Policy & Management: ‘Speech Recognition using Hidden Markov Models in Embedded Platform’)에서도 우수학술상을 수상해 각각 SSCI와 SCOPUS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Professor News 교수동정

경영대학 교수 연찬회 6월 24일부터 27일 까지 대만에서 진행



최종서 학장, 서문식 부학장, 옥석재 학과장 등 약 20명의 교수와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더 나은 학기를 준비하기 위해 대만의 대학탐방과 문화체험을 하며 교수들이 단합하는 자리를 가졌다. 연찬회 공식 일정이 끝난 6월 29일 일요일에 최종서 학장을 비롯한 경영대학 교수진들은 대만국립대학교의 Ruey-



Shan Guo 경영대학 학장, 대외교류부장 및 교수들과의 미팅을 통해 향후 부산대학교 경영대학과 대만국립대학교 경영대학 간의 교류에 대해 논의했다. 경영대학을 위해 힘쓰시는 교수님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Scholarship 장학

2015학년도 2학기 성적우수 장학금 지급

2015학년도 2학기 등록금재원 성적우수 장학생으로 수업료+기성회비, 수업료, 기성회비 1/2, 기성회비 1/4 지원으로 나누었는데 경영대학에서는 총 118명이 지원받았고, 외부장학금으로

는 BNK 금융그룹 희망나눔 장학생 1명이 150만 원을, 협성문화재단 장학생 1명이 218만원을 받았다. 학업에 열심히 매진한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은 학생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경영 83동기회 장학생 선발



부산대 경영대학 83학번 동기회에서 장학금을 출연하여 휴학생을 제외한 현재 재학중인 경영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일백만원이 지급되었다. 이번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두 학생이



앞으로 경영대학을 더욱 빛내주기 기대하며 83동기회 장학금은 이미 수혜중인 장학금과는 별개로 지급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신청하기 바란다.

University Events 대학행사

개강총회 3월 4일 국제관 B101호에서 진행

3월 4일 오후 6시, 부산대학교 국제관 B101호에서 경영대학 개강총회가 진행되었다. 개강총회는 경영대학 학생회에서 주최하였으며, 새 학년 새 학기를 시작한 후 공식적인 첫 행사이기 때문에 많은 신입생이 참여하여 대학생활의 시작을 알렸다. 차례대로 경영대학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인사, ROTC와 경영대학

학생회 예산심의기구 M-cube 소개, 학생회 부서, 학번 대표 역할을 하는 반장들의 소개가 이루어졌고, 학사 일정이나 과 행사 일정 소식에 어두운 것 복학했거나 입학한 학생들을 위한 정보 제공이 특히 도움되는 시간이었다.

대학행사 University Events

경영관 인터넷 카페 의자 교체



3월 12일, 인터넷 카페 기존 의자가 너무 낡고, 부서지고, 불편하다는 학우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영대학 학생회에서 의자 교체를 시행하였다. 경영관 내 인터넷 카페는 지난 2006년에 설립되었으나, 10년에 가까운 세월 간 수많은 학우가 이용하다 보니 시설이 점점 낙후되어 이번 계기로 교체를 하게 되었다. 경영관 도서관 의자와 CPA 정독실 의자 교체 또한 이번 여름 방학 중에 경영대학 학생회에서 실시하여 학우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교복 Day



올해로 세 번째 진행되는 교복데이 행사는 4월 1일, 만우절을 기념하여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와서 학창시절에 추억에 잠시 젖을 수 있는 특별한 행사이다. 행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전년과 비슷하게 가장 많이 교복을 입고 온 반과 독특한 컨셉이 드러나는 사진을 찍은 학생에게는 경품이 지급되었다. 올해 또한 많은 신입생이 교복을 입고와 주었는데 드문드문 군복을 입고 온 예비역 학생들도 보여 보는 이와 참여하는 이 모두 즐거운 시간이었다.

개교 기념 등반대회

개교 69주년을 맞아
부산대학교 총 동문회 연례행사인 등반대회를 개최

이번 등반대회에 많은 경영학과 재학생들이 참여하여 선후배 간의 친목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선배들에게 아낌없는 조언을, 후배들은 선배들에게 지난 청춘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선사하는 시간이 되었다. 성황리에 마친 매년 등반대회를 기점으로 내년 등반대회 또한 개교 70주년을 맞이하여 더욱더 활기차고 큰 선후배 교류의 장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이다.

직무특강



5월 1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경영대학 학생회와 학술동아리 카를루스가 주최하는 직무특강을 실시하였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진행된 직무특강은 총 2부로 나누어져 1부에서는 인사, 회계, 전략, 고객관리 분야별 선배들에게 조언을 듣고, 2부에서는 각자 관심 있는 분야 관련 선배들이 있는 강의실에 찾아가 직무 관련 정보를 듣는 값진 기회가 되었다.

경영대학 체전



5월 2일 토요일 부산대학교 넉넉한 터에서 경영대학 체전이 열렸다. 참가한 학생들에게 매향과 편육이 제공되었고, 축구, 전략 줄다리기, 물풍선 많이 받기, 낫다리밟기, 미션릴레이, 여자파구, 빨리 골라 먹기 등 다양하고 흥미를 끄는 종목들로 구성되었다. 체전은 반 대항전으로서 신입생뿐만 아니라 재학생 선배들도 함께 반의 화합을 다지는 계기가 되며, 그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이지만 대학생활 추억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내년에도 학우들의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

University Events 대학행사

대동제 경영주막

5월 12일 넉넉한 터에서 진행



5월 12일 부산대학교 넉넉한 터에서 대동제를 맞이하여 경영학과 주막이 열렸다. 기존에는 경영학과 주막이 이들을 운영하였지만, 올해는 하루만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주 한 병당 1,000원에 파는 다양한 이벤트 등을 마련하여 많은 학생과 교수님들이 찾아주어 젊음을 대표하는 대학축제에 더욱더 활기를 띠게 한 축제 기간이었다.

시험대비 간식 행사

중간고사에는
햄버거를,
기말고사에는
고로케를 제공



이번 학기 또한 경영대학 학생회에서 시험공부에 매진하고 있는 학우들을 위하여 시험대비 간식으로 중간고사 시험 기간에는 햄버거를, 기말고사 시험 기간에는 고로케를 준비하였다. 이 행사는 지금까지 학생회에서 떡, 밥버거, 햄버거 등 다양한 간식을 준비하여 시험 대비로 학업에 매진하는 학우들에게 가장 사랑을 받는 행사 중 하나로 앞으로도 더욱 알차고 맛있는 간식이 기대되는 행사이다.

제회 영남권 경영세미나



오픈캠퍼스

매년 고등학생들에게 유익한 기회



5월 23일 토요일, 경영관 109호에서 오픈캠퍼스 행사가 진행되었다. '오픈캠퍼스(Open Campus)' 행사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이 본인이 관심 있는 과에 대한 입시 정보와 진로, 전망 등을 접할 수 있는 설명회 행사로 매년 학생회의 도움으로 진행되고 있다. 항상 인기가 많은 경영학과 오픈캠퍼스 명성 그대로 이번에도 부산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에서 온 학생들로 강의실이 가득 차 미래 경영 꿈나무들의 열정이 느껴졌다고 한다. 오픈캠퍼스를 통하여 내년도도 우수한 인재들이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에 입학하기를 바란다.

경영관 A동 화장실 공사

여름방학을 맞아 학수고대해온
화장실 공사 진행

여름방학을 맞아 7월 13일부터 경영관에서 A동 화장실 공사가 진행되었다. B동 화장실은 상시 사용자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양 건물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면 다른 건물을 쓰는 불편할 뿐만 아니라 소음으로 학업에 지장이 생기는 등의 이유로 A동 공사가 끝난 후에 진행될 계획이다. 그동안 수많은 우리 경영대학 식구들이 화장실 공사를 학수고대해온 만큼 다가오는 9월, 새 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쾌적한 화장실이 반겨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7월 27일부터 28일 양일간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ST)에서 경영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는 우리 부산대학교와 울산과학기술대학교, 한동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의 각 대학 경영학과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진행된 세미나로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학적 방안'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팀마다 발표가 이루어졌다. 우리 대학에서는 상과대학 학술동아리 성혜에서 한 팀, 그리고 이성균(경영 09) 외 3명으로 이루어진 한 팀, 총 두 팀이 준비하였고, 참가한 이인환(경영 12) 학생은 "학교를 대표하여 나간 만큼 열심히 준비하려고 노력하여 좋은 경향이 되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하고 이후에 후배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201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총 94명이 학사 학위 수여

8월 28일 금요일 부산대학교 경암체육관에서 201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열렸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상과대학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42명, 회계학전공 29명, 금융공학전공 10명, 경영대학 경영학과 13명을 포함하여 94명이 학위를 받았다. 졸업하는 94명의 효원경영 학우들 모두 각자 목표하는 위치에서 부산대학교를 빛내는 당당한 사회인이 되길 바란다.



포인터기 대여 이번 학기 최초로 포인터기 대여사업 시행

경영대학 학생회에서는 이번 학기 최초로 포인터기 대여 사업을 시행하였다. 처음에는 두 개 대여로 시작하였으나 과 특성상 발표 수업이 많으므로 포인터기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 점

점 포인터기 개수를 늘려나가는 추세이다. 포인터기는 사용 전 날에 반드시 예약해야 사용할 수 있다.

학생수상 Student Awards

박현웅(경영 10학번) 외 5명,
부산광역시 대학생 마케팅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7월 1일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4회 부산광역시 대학생 마케팅 공모전 본선에서 경영학과 박현웅(10학번), 유혜진(11학번) 학생을 포함한 6명의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최우수작 '잘 보이네 부산씨'는 "시민들이 부산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과 부산시가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마음을 연결해 '씨스루'라는 개념을 도출했다. 이러한 전략은 시민들과 부산시의 소통을 쌍방향으로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F&M, 성혜, SMP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지역예선 우수&장려상 수상

7월 23일 목요일 경영대학 학술동아리 F&M, 성혜, 그리고 SMP가 한국은행 부산 본점 1층 대강당에서 한국은행 주최로 개최된 통화정책 경시대회에 출전해 우수상(F&M)과 장려상(성혜, SMP)을 받았다. 본 대회는 부산, 울산, 경남, 제주 지역 예선 대회였으며, 수상학생은 F&M에서 김상원(금융 10), 장석진(금융 10), 박우진(경영 10), 박정인(경제 10) 학생, 성혜에서 전근배(경영 09), 이수연(경영 09), 김의진(금융 10), 강동연(경제 10) 학생, 그리고 SMP에서 양세은(경영 13), 박재홍(경제 09), 이기욱(경제 10), 안현수(경제 10) 학생이 수상하였다. 통화정책 경시대회는 큰 대회에서 상을 거머쥔 우리 경영대학 학생들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Student Awards 학생수상

김아정(경영 13) 학생, 2015 Merz Idea Contest 최우수상 수상



◀ 사진
오른쪽 인물이 김아정 학생

김아정(경영 13) 학생이 독일에 본사를 둔 글로벌 제약사인 멀츠코리아에서 주최한 2015 Merz Idea Contest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1차 합격한 후 7월 24일에 열린 PT 경쟁에서 “에스테틱 시장에서 일반인에게 멀츠의 인지도를 확립하는 프로그램 17가지 제안”이라는 마케팅 부문 응모주제에 대해 멀츠는 사람의 외모뿐만 아니라 삶을 채운다는 ‘사람을 채우다’라는 구상으로 여대생을 타겟으로 하여 당당히 상장과 100만 원의 상금을 거머쥐었다. 학교 밖에서 열심히 활약하고 있는 경영대 학생들을 응원한다.

2015년 부울경 대학(원)생 금융논문 공모전 최우수, 우수, 장려상 수상

8월 26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39층 대회의실에서 ‘2015년 부산·울산·경남지역 대학(원)생 금융 논문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다. 이번 공모전은 부산으로 본사를 옮긴 한국예탁결제원의 주관으로 ‘부산금융중심지 및 예탁결제제도 발전’이라는 주제로 지난



3월부터 7월 말까지 진행되었다. 논문 6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된 가운데 그중 3편의 논문을 부산대학교 경영대학 학생들이 집필하였다. 최우수상은 ‘전자 MTN 도입을 통한 국내 금융시장의 효율적 발전방향’을 연구한 김의진(금융 10) 외 2명에게 돌아갔고, 권석진(금융 10), 이제희(금융 09), 김동우(경영 10) 학생이 우수상을, 김상영(경영 09), 정술기(금융 09), 김성훈(회계 09)학생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 1편에 대해서는 500만원, 우수상 2편에 대해서는 각 300만원, 장려상 3편에 대해서는 각 100만원의 시상금이 수여됐으며, 수상자들에게는 신입사원 채용 서류전형 상 우대하는 혜택도 부여한다.

SMP, 금융투자협의회 대학생 자산관리 경진대회 최우수상



7월 27일 금융투자협회 부산지회에서 열린 ‘제4회 금융자산관리 경진대회’에서 상과대학 학동아리 SMP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수상 학생은 양다슬(경

영 13), 이재희(경영 11), 이정문(경영 12), 김수진(무역 11) 학생으로 본 대회는 최근 동남권 대학생들의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 미래 금융전문가 육성지원을 위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구성 및 제안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 주최되었고, 금융투자업계 2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3인의 전문가 심사위원들이 정량평가(금융상품 이해도 등) 및 정성평가(발표자세 등)를 기준으로 출전팀을 평가하였다.

국제관련 International

2015학년도 1학기 초청 교환학생 간담회

싱가포르와 카자흐스탄에서 온 교환학생 5명과 그들의 버디학생 4명이 참석



2015학년도 1학기 초청 교환학생 간담회가 4월 30일 상남국제회관에서 진행되었다. 교직원으로는 최중서 학장, 서문식 부학장, 강상훈 교수, 김지은 조교가 참석하였고 학생들은 싱가포르와 카자흐스탄에서 온 교환학생 5명과 그들의 버디 학생 4명이 참석하

였다. 최중서 학장과 교환학생들은 식사를 함께하면서 부산대학교를 선택한 동기와 학습의 만족도 등에 관해 이야기하였다. 정해진 기간 동안에 교환학생들이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에서 많은 추억을 쌓고 유익한 것을 배우고 돌아갔으면 한다.

USM Hooy Chee Wooi 부교수 특강

6월 16일 화요일 오후 3시, 경영관 208호에서 말레이시아과학대학교(Universiti Sains Malaysia)의 후이 치 우이(Hooy Chee Wooi) 교수의 특강이 진행되었다. 말레이시아과학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이자, 2015년도 1학기에 부산대학교로 교환교수 차 방문한 후이 교수는 말레이시아 금융권에

서 각광 받는 연구자이며, 100편이 넘는 국내외 컨퍼런스와 세미나에서 발표와 상급의 금융 저널을 집필하는 등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날, 경영학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이 특강은 ‘Research and Publication in Finance’라는 주제로 금융 연구의 이해, 금융 저널의 이해, 최근 금융 분야에서 흥미로운 연구 주제 순으로 진행되었다.



미국 럿거스대학 복수학위 수여

조혜인, 김민지 학생 복수학위 수여

경영학과 조혜인, 김민지 학생이 미국 뉴브런즈워(New Brunswick)에 있는 럿거스대학에서 복수학위를 수여하였다. 두 학생은 2013년 9월에 파견되어 최근 복수학위를 수여하였으며, 교환학생이 아닌 복수학위를 수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럿거스 경영대학과 부산대학교 경영대학과의 교류는 2011년 럿거스 경영대학 가넷 학장의 방문 후로 2013년부터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지속해서 이어져 왔다. 럿거스 경영대학으로 파견되는 선발 기준은 학부 성적 평점 3.4 이상과 IBT 79(CBT 213/PBT 550) 또는 IELTS 6 이상을 보유한 학부 2학년 이상의 학생이며, 기본 서류 심사 후 경영대학 국제화위원회 위원면접심사를 거친 후 선발된다. 해외에서 복수학위수여에 관심 있는 학생은 참고하길 바라며, 우수한 성적으로 복수학위를 수여한 두 학생에게 박수를 보낸다.



AMP Advanced Management Program

AMP 65기 입학식

강민정 외 76명이 입학

3월 5일 목요일 오후 7시에 부산대학교 상남국제회관 효원홀에서 최고경영자과정 제65기 입학식이 개최되었다. 이날, 강민정 외 76명이 입학하였으며, 강성규 부산대 AMP 총동문회장이 축사를 맡아 입학생 모두가 AMP의 일원이 된 것에 축하의 뜻을 진심으로 전했다.



International 국제관련

베트남 HCM-IU대학과 MOU체결 협정체결자 및 기타사항 논의 완료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은 Vietnam National University in Ho Chi Minh City의 여섯 협력 대학 중 하나이며 영어를 제 1언어로 사용하는 종합 연구 중심 대학인 HCM-IU대학과 2014년부터 MOU체결사항을 논의한 결과 2015년 4월 22일에 협정체결자 및 기타 사항에 대한 논의가 완료되었다. 협정의 목적은 학생, 교직원 교환 및 학술교류이다. 협정의 주요사항으로는

- 1) 학부생의 파견 및 초청교환: 매년 최대 10명
- 2) 교직원의 파견 및 초청교환: 매년 최대 1명
- 3)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이며 본 협정을 통해 부산대학교 경영대학 학위과정의 국제교류의 질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Advanced Management Program AMP

워크숍 및 산업시찰

3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거제 삼성호텔과 통영에서 진행



3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거제 삼성호텔과 통영에서 워크숍 및 산업시찰 행사가 진행되었다. 첫날에는 삼성호텔에서 이순신 리더십 특강(강연자: 박정욱)을 듣고, 둘째 날에는 통영으로 이동하여 한산도 제승당, 세병관 등의 통영의 문화유적을 탐방하여 모두가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선후배 간담회 AMP 65기와 AMP 총동문회 집행부와의 선후배간담회를 진행



4월 23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최고경영자과정 강의실에서 AMP 65기와 AMP 총동문회 집행부와의 선후배간담회를 진행했다. 강성규 부산대 AMP 총동문회장의 특강을 시작으로 AMP 총동문회



집행부가 참석한 가운데 선후배 간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자리를 가졌다.

Alumni Association 동문회

2015년도 확대이사회 개최

경과보고, 재무보고,
연간 사업/예산 계획 발표 및 승인,
기타 안건 토의가 진행



지난 3월 12일 부산대 역 근처 중식당 락앤락에서 김유일 전 경영대학장과 30여 명의 임원단, 교수 및 경영대/경제통상대 학생회장,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과대학 확대이사회가 진행되었다. 상대 동문회는 2년에 1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이취임식이 없는 해에는 확대이사회를 개최한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동문회 발전에 관심 있는 모든 동문을 대상으로 경과보고, 재무보고, 연간 사업/예산 계획 발표 및 승인, 기타 안건 토의가 진행되었다.

주요 회의 내용으로는

1. 제4회 자랑스러운 부산상대인상 시상식은 2016년도 정기총회 때 하는 것으로 결정
 2. 상대동문회 산악회 창립을 위한 추진위원장으로 김유일 전 경영대학장, 총무에는 이승진 동문(무역 97학번) 추대
 3. 동문회 재정 확충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있다.
- 서로 존재만으로도 자부심이 생기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동문회가 되기를 바란다.

동문회 Alumni Association

부산상대 산악회 창립 산행

4월 25일 토요일 모교 및 금정산에서 진행

4월 25일 토요일 모교 및 금정산에서 부산상대 산악회 창립 기념 산행이 진행되었다. 총 21명의 동문 및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적인 첫 산행을 순조롭게 마쳤고 집행부는 최태열(74학번) 동문을 회장으로 산행대장 이종주(83학번) 동문, 산행부대장 여만구(89학번) 동문, 총무 이승진(97학번) 동문으로 구성되었다.



있다. 상대 산악회는 매월 네 번째 토요일 정기산행을 실시하며, 장거리 및 해외 원정 산행 등의 경우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부산상대 산악회가 동문회 골프 서클인 효원회와 더불어 상대동문 간의 좋은 교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제3회 부산상대 동문회장배 골프대회

통도파인스트 컨트리클럽에서 동문, 전/현직 교수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개최

지난 6월 11일 목요일 통도파인스트 컨트리클럽에서 동문, 전/현직 교수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제3회 부산상대 동문회장배 골프대회가 개최되었다. 골프대회에는 전석현 동문회장(74학번), 김보두 교문(70학번), 양희운 최고학번동문 (55학번), 이갑수 경제통상대학장 등 전, 현직 교수 9명과 55학번부터 96학번 동문까지 총 15개 조가 참석하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친목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제3회 챔피언에 등극한 윤한팔 (82학번) 동문은 동문회에 대한 지원의사를 강력히 밝히며 내년에는 더욱 많은 동문이 참가하면 좋겠다고 우승소감을 밝혔다. 세계 최강! 부산 상대! 구호를 외치며 더욱 도약하는 동문회가 되기를 바란다.



국립부산과학관 초대 관장에 이영환 (경영 7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동문 선임

국립부산과학관의 초대 관장으로 이영환(경영 7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동문이 선임됐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부산시는 국립부산과학관법인 설립위원회에서 초대 관장과 임원 선임 절차를 진행하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7월 6일 밝혔다. 이 관장은 부산시 재정관, 경제산업실장, 경제부시장 등 지역 경제 분야에 근무하면서 기업지원 및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부산 과학관은 시범운영 및 직원채용 등 내부 준비를 통해 오는 10월 말 개관할 예정이다.





IAMSTUDENT 디자이너가 된 경영학도

박 준 현 경영 09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두 번 정도 해봤는데 제일 어려운 질문이 자기소개예요. 자기 소개 할 줄 안다면 나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건데 저는 도무지 저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겠네요, 하하. 안녕하세요! 라고 시작하는 게 제일 무난하겠죠? 저는 경영학을 전공하는 동시에 의류학을 부전공하고 있습니다. 쇼핑하는 걸 무척 좋아해서 수업 마치면 매일 서면이나 부산대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데 윈도쇼핑도 하면서 요즘 어떤 아이템이 트렌드를 이끄는지, 그리고 샵인테리어나 디스플레이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구경합니다. 이렇게 옷을 좋아하다 보니 옷 태 잘 나는 사람들이 부럽기도 하고, 옷 태뿐만 아니라 내면의 태 또한 잘 나고 싶은 스물여섯 청년 박준현입니다.

개인 사업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업인가요?

개인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거창하고, 아무래도 활동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지닌 역량과 능력을 직접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좋아하는 '양말'이라는 아이템이 제 눈에 들어왔고, 지금은 양말을 디자인해서 판매하고 있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양말 판매 수익금 중 30% 정도를 기부하는데 기부금액이 훨씬 크긴 하지만 이윤도 남기니 자선사업은 아닙니다. 양말이라는 아이템에 '기부'라는 컨셉을 넣은 이유는 양말 사업을 좀 더 차별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양말을 대량생산하여 수익금 일부를 노숙자들과 신생 스타트업 기업에 기부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아직 사례가 없는 것 같아서 저와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시작했죠. 지금은 저 혼자 기획부터 디자인, 생산, 판매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모두 취업에 열중하는데 양말 사업에 도전하신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경영학과 의류학, 두 학문이 이룬 중심의 학문이라기보다는 실무 중심의 학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경영은 모두 아시다시피 결국 사람을 다루는 일이고, 의류학 또한 공부해보니 사람을 다루는 일더라고요. 저는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직접 부딪히고 경험이 필요한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군 제대 후 모은 아르바이트비 백만 원을 모두 양말에 투자했죠. 그러다 보니 제가 양말이라는 아이템을 선정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비용이었습니니다. 저는 누구에게 돈을 투자받아서 일을 크게 벌이는 게 아닌 제가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판매하고 싶었습니다. 당시에는 양말은 단가도 다른 의류보다는 저렴하다고 생각했습니다(막상 시작하니 전혀 아니더군요.). 두 번째로 양말은 우리 몸의 중요한 부위 중 하나인 발을 땀과 여러 이물질로부터 보



호하잖아요. 저 또한 이 양말로 번 돈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저는 양말을 만들 때 디자인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도울 수 있을 지부터 생각합니다. 저는 소비자보다 돕고 싶은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를 모티브로 양말을 제작합니다. 이것이 제 양말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다른 브랜드들과 차별화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활동을 시작하면서 겪었던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 있었나요?

가장 어려운 건 역시 비용과 사람입니다. 활동하면서 가장 어려운 건 판매도, 영업도, 기획도 생산관리도 아닌 사람을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을 만들기 위해 공장 생산 담당 매니저님과 약속을 잡고 제가 생각하는 디자인 방향을 잘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게 그분께 잘 전달을 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 생산 날짜를 협상하는 것도 오로지 저의 협상 능력으로 해야 합니다. 봄에 신는 색이 다르고 여름에 신는 색이 다르듯이 양말은 패션아이템이기 때문에 계절에 매우 민감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생산기한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정하는 건 오로지 저의 사람 다루는 능력, 즉 협상 능력에 달렸습니다. 이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죠. 아마도 사람을 다루는 능력, 협상하는 것이 저에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앞으로의 꿈과 목표는?

저의 진짜 꿈은 저만의 특색 있는 브랜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직 브랜딩에 대해 아는 것은 없고 구상 단계에 멈춰있지만, 저만의 차별화된 브랜드를 만드는 게 제 꿈이에요. 활동을 몇 달간 해보았지만, 아직도 저는 제가 의류경영을 아직 잘 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양말 활동을 계속하면서 의류회사나 백화점에서 경험을 쌓은 후 독립해서 제 브랜드를 런칭하고 싶습니다. 아, 앞으로 20년 뒤에는 제가 경영하는 백화점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디자이너와 판매자가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백화점의 CEO, 그것이 또 하나의 제 꿈입니다.

경영학과 학우들에게 이것만은 꼭 말해주고 싶다

개인적으로 경영학과 학생들이라면 자신을 차별화할 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의식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고, 귀가 얇은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경영학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것이 차별화입니다. 원가차별화, 제품차별화 등등 수많은 차별화 전략을 배웁니다. 하지만, 그전에 자신을 차별화할 수 있는 경험을 대학생활에서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경영학과 학생들이 있는지, 그중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능력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 또한 남들보다 매우 차별화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제가 직접 디자인한 양말 판매와 기부라는 특별한 경험만큼은 많이 해봤다고 자부합니다. 과연 남들이 모두 하는 활동(대외활동, 인턴, 토익, 토스 등등)은 경쟁력이 있을까요? 차별화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물론 저도요!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WITH

김 동 욱 창조산업팀 차장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국 16개 시도에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현 정부의 기본 바탕인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부산 지역의 창조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우리 센터는 유통과 문화/관광이라는 주제를 기반으로 유통/물류의 아시아 탑 기업인 롯데그룹과 함께하여 지역 인재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그 사업화한 것을 바탕으로 각 시도별로 선정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역 기반의 영세 기업의 제품을 전국적인 유통망을 갖춘 롯데가 지원함으로써 사람들이 큰 시간과 비용의 소모 없이, 뛰어난 제품과 아이디어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외에도 문화창조 융합 벨트와 연계하여 부산의 영상, 영화 창작 허브를 조성하고,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해 사물 인터넷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등, 부산 지역의 여러 관련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타지역의 다른 센터에 비해 짧은 시간 내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부산이 롯데 그룹과 함께 유통과 물류의 측면에서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은 도시 곳곳에 백화점과 마트, 아울렛 등 다양한 유통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고, 고속철도와 세계 5위의 무역항을 가진 아시아의 유통 허브 도시입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부산의 강점과 롯데가 가진 인프라가 잘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유통 구조에 따르면, 2억 원 이하의 물량을 판매하는 영세 상공인의 경우, TV를 통한 홈쇼핑 진출도 거의 불가능 한데다, 높은 수수료 때문에 유통 경로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롯데 쇼핑의 one 채널을 통해 영세 사업자들이 훨씬 낮은 비용과 노력으로 자사의 뛰어난 제품을 전국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되어 많은 영세 업체들이 큰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기관 출범 4개월 만에 매출 34억, 투자 35억을 달성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까?

유통과 문화/관광이라는 주제를 기반으로
유통/물류의 아시아 탑 기업인 롯데그룹과 함께하여
지역 인재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그 사업화한 것을 바탕으로
각 시도별로 선정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



다른 지역 창조경제 혁신센터와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또한, 롯데 기업이 창조경제 혁신센터와 어떤 협업을 담당하고 있나요?

모든 지역의 센터는 공통으로 지역 인재의 작은 아이디어를 큰 산업으로 키우고자 한다는 점에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특성화된 분야가 다르고 제휴하는 기업이 다르므로 각각의 지역의 특색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각 기업과 지역이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혁신센터가 그 유통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CJ 문화산업 육성/ 울산-현대중공업 해양플랜트와 조선 기자재 산업/ 경북과 대구-삼성전자 전자 산업과 섬유산업을 육성)

부산의 경우,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영화제인 부산국제영화제의 고장이자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 등급심의위원회와 같은 한국의 영상문화 콘텐츠의 중주도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 부산시는 아시아 예술 영화의 메카로의 성장을 위해 롯데시네마와 함께 예술영화의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 지역 내 롯데시네마 중 세 곳(광복점, 센텀시티점, 부산대점)에서는 샵롯데관을 운영하여 365일 예술영화만을 상영하는 전용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예술영화 시나리오 공모전을 실시하여 많은 상금과 함께 영세한 영화제작자들이 경제적인 제약 없이 예술 영화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또한 진행 중입니다.



유명한 부산 전통마을 기업 중 하나인 장석준 명란젓도 해외에는 팔로가 있었음에도 국내에는 팔로가 없었지만, 롯데의 지원으로 홈쇼핑 촬영을 하고, 롯데마트를 비롯한 전국의 마트에서 유통망을 넓힌 결과로 총 20억의 매출을 내는 등 눈부신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삼진 어묵과 대저 토마토와 같은 기업들 또한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을 통해 판매 시장이 부산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전국적인 유통망을 갖추게 되어 팔목할 만한 매출 증가를 실현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기업들의 성공을 통해, 올해 부산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통한 매출이 1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 창조경제 혁신센터에서는 유통, 영상, IoT(사물인터넷)를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 혁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제조업이 부산에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업에 초점을 둔 활성화나 혁신산업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조업에도 충분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영화, 유통, IoT를 중점으로 육성하고 있으므로 제조업을 지원하는 센터로 연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산에도 조선 기자재, 자동차 부품이 많은데 ‘혁신상품인증제’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저런 부품을 담당 육성하고 있는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로 연결해 드립니다. 반대로, 다른 지역의 영화, 유통, IoT도 어느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내의 모든 산업을 담당하는 것이 아닌, 중점 산업만 저희가 담당하고, 다른 산업들은 다른 전문 지역으로 보내는 형식으로 각 지역에 설립된 창조경제혁신센터들은 전국의 산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인 창업이나 스타트업의 경우 수도권 지역과 비교하면 부산 지역의 사례가 다소 적은 것 같은데 대학 소식지인 만큼 대학/대학생에 관련하여 구상하시고 계신 활성화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상 저희 센터는 대학생들에게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야말로 창의적이고 젊은 인력이라는 큰 장점을 가졌지만,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가장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산대학교를 포함한 부산 지역 내에 있는 대학교와 접촉하며 MOU 체결이나 협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학생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하려 함에도 요즘 학생들이 창업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부산대학교 경영대학 소식지에 저희 센터가 홍보되는 것도 굉장한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품이 있다면 누구든 인원수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고, 3D 프린터, 스마트 스튜디오, 서울 본사와 실시간 상담, 홍보 영상 편집/시연/자료실, 컨퍼런스룸, 단기 사무실 대여 등 센터 내 다양한 시설들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금융/특허 쪽 전문가들 또한 재능 기부 형식으로 무료로 상담해드리고 있으니 지원이 필요한 많은 학생이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들에게 자유롭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학생 여러분이 저희의 주된 관심 대상이다 보니 이미 여러 대학에도 찾아가 보고, 저희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대학생들을 지켜봤지만, 창의적이고 혁신적일 것이라는 예상 밖으로 기존에 있던 아이디어를 살짝 바꾼, 쉽게 말하면 이미테이션 식의 아이디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모험해도 괜찮습니다. 그때 아니면 언제 모험을 해볼까요? 실패해도 여러분들은 아직 다시 돌아가서 또 도전할 기회가 많습니다. 세상은 넓고, 도전하는 젊은이들은 많습니다. 밖에 나가면 나보다 잘난 사람들, 아주 많죠.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절망하기보다는 오히려 배우고 경쟁하는 것도 또 하나의 성장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젊은이들은 열심히 하기만 하면 뭘 해도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부산대학교 경영대학 학생들 역시 최선을 다해보고 도전해보길 바랍니다.

Interview AMP 65기

김종오 회장

(주)펠릭스테크 대표이사



펠릭스테크(Felixtech)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펠릭스테크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위치한 산업용 단조품과 자동차부품 전문 수출기업입니다. 1998년 직원 2명과 함께 시작한 우리 회사는 현재 단조 피스톤 부분에서 세계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 650억을 달성하였고, 지난해 부산수출대상과 11년에 대통령표창장을 수상했습니다. 올해는 800억가량의 매출이 기대되고, 곧 코스닥 상장도 준비 중입니다.

사람마다 성공이라는 가치관, 개념이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회사는 이제 제대로 된 도약을 시작하려는 단계라서 아직은 성공했다고 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회사의 매출액만 보고 성공했다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죠. 저는 한 회사가 성공했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회사 시스템이 글로벌화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든 해외의 뛰어난 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매출과 투자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야 하고, 자사의 제품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회사도 아직은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하는 거죠.

큰 회사이기 이전에 좀 더 색다른 회사를 만들고 싶은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저는 그 특별함의 시작을 사람에서 찾았습니다. 직원 한 명 한 명이 저에게는 매우 소중합니다. 현재 부산 내 동종업계에서는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는 기업이 사원 개개인의 소중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회사는 신입 직원을 채용할 때, 면접을 오전부터 밤 10시 반까지 진행합니다.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회사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또 얼마나 큰 위험이 될 수 있는지 알기 때문에 사람을 뽑을 때도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회사에서는 복지가 곧 신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종 업계에서 뛰어난 수준의 복지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래 연구직에 임하셨다가 펠릭스테크 CEO라는 자리로 새 출발을 하셨는데, 인생에서의 새로운 도전으로 인한 과정이나 역경 같은 본인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역경은 물론 대학이었죠. 어릴 때부터 저는 계획 세우기를 좋아했습니다. 사소한 일에서부터 내 인생의 목표까지 저의 일상은 크고 작은 계획의 연속이었습니다. 저의 꿈이었던 의사도 당연히 그 계획에 포함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비고사에서 기대했던 만큼 성적을 받지 못해 의대를 포기하게 되었고, 공과대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순간이 제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친한 친구들이 의대나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보면서 더욱더 제 삶이 실패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탓에 입학 후에도, 한 학기에 수업을 세 번도 안 갔을 정도였으니까요(웃음)! 방향도 많이 하고 목표의식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 반이라는 시간을 여행도 다니고 신나게 놀다 보니 자연스레 무너지더군요. 그리고 문득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대는 가지 못했지만, 내가 의사보다 못할 게 뭐 있나? 의사보다 성공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때부터 저는 이를 악물고 공부하기 시작했고, 주변 사람들이 어디 아프냐고 걱정할 정도로 180도 달라진 삶을 살았습니다. 일 년에 수업 세 번 들어가던 학생이 도서관에 1등으로 들어가서 마지막에 나올 정도였으니 놀랄 만하죠(웃음) 그렇게 남은 대학생활 동안 원 없이 공부를 했고, 제가 원하던 연구소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억에 남는 일은 제가 포드에 단조품을 납품하려 할 때 이야기입니다. 당시 한국 단조품에 대한 인식은 일본과 비교도 안 됐습니다. 일제는 무조건 좋고 한국산, 중국산 제품들은 원가 절감만을 위해 사용하는 낮은 품질의 제품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한국산 제품도 품질이 좋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다짐 하나로 세계 유수의 자동차 회사들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특히, 미국 포드사에 납품하기 위한 일인데요. 견적요청서를 포드 본사에 한 달간 이메일과 팩스를 수도 없이 보내며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몇 달을 연락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는 답이 없었기 때문에 확인전화를 넣는 방법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러자 문제가 발생한 게, 미국과의 시차였습니다. 미국은 우리보다 10시간 이상 시간이 늦기 때문에 현지 근무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밤 11시쯤에 연락을 해야 했었는데, 혹여나 회의나 점심시간 때문에 늦어지는 날은 새벽 3시까지 잠도 못 자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몇 달간 같은 시각에 전화가 오니 그 실무자도 신기했겠죠. 도대체 어떻게 매일매일 그 시각에 전화하느냐고, 그 동네는 도대체 몇 시냐고 묻더라고요(웃음). 그때 상황을 설명했죠. 시차 때문에 이곳은 새벽 세시 정도이고 그쪽 시간을 맞추기 위해 전화를 지금 한다고. 그러자 그 실무자도 아차 싶었나 봅니다. 그런 줄을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견본을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그 뒤로 견적서와 견본품을 주고받았고, 지금까지도 포드사와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지극정성이었네요. (웃음)



AMP 65기 회장 직을 맡고 계시는데 그만큼 부산대 AMP에 애착이 크실 것 같습니다. 부산대 AMP를 선택하신 계기와 AMP를 통해 얻은 점 몇 가지 부탁드립니다.

바쁜 회사생활 와중에도 AMP를 선택한 계기는 아무래도 부산대학교 AMP가 부산 지역 내의 경영자들이 경영노하우를 공유하는 대표적인 인적 교류의 장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대 AMP에서는 우수한 특강, 정보 교환, 인적 네트워크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실무에서 놓칠 수 있는 이론적인 내용이나, 다양한 분야의 권위자들의 소중한 조언과 경험을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파티문화가 부족한 것이 굉장히 아쉬웠는데 AMP를 통해서 쉽게 만날 수 없었던 다양한 직종의 경영자들과 사교와 교류의 장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 소중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 또한, 대학발전기금이나 학생 장학금을 조성하는 등의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서 더욱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성공한 창업가인 동시에 경영자의 입장에서, 창업을 기피하는 요즘 대학생, 현 20대에 조언 부탁드립니다.

성공한 창업가라는 말이 많이 쑥스럽네요(웃음). 조언이라기보다는 제가 지금 대학생으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하고 싶다고 느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요즘 대학생들은 취업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아서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특정한 무언가에 미처보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미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생은 아마추어 아닙니까? 프로의 실수는 자신의 명예까지 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이지만 아마추어의 실수는 언제든 용납될 수 있습니다. 저는 실수가 용납되는 마지노선이 대학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수와 실패가 있더라도 아직은 용서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에 한 번쯤 미쳐보라고 꼭 말해주고 싶네요.

또, 요즘 대학생들은 왜 창업을 하지 않느냐고 못마땅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저도 도전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창업을 해보는 것도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있죠.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흔히 '실패의 요람'이라고 하죠. 실제로도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수많은 젊은 사업가들이 수많은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애석하게도, 한국사회는 아직 실패나 재도전에 대한 기회나 인식이 부족한 편입니다. 제도적 완충장치도 부족한 편이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무작정 창업에 뛰어드는 것보다 전문성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종 업계에서 최소 5년 이상은 근무할 것을 권하고 싶네요. 제가 생각하기에 5년 정도의 경험이 있어야 그 업계의 동향도 알 수 있고, 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인적, 경험적 자원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학생들이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 깨달았으면 합니다. 제가 신입 사원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뭘까요? 사실 저는 독창성과 창의력 못지않게 인성을 정말 많이 봅니다. 신기하게도 사람 얼굴에 그 사람의 인성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행동이나 습관에도 관성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철학과 물리학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리 법칙과 마찬가지로 생각이나 의식에도 관성이 있기 때문에 먼 미래의 성공을 이야기하기 전에 자신의 현재 습관을 되돌아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습관은 행동이나 심지어 얼굴로도 쉽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인상을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겠지요? (웃음) 이러한 습관을 좋은 방향으로 들이기 위해서 항상 책을 가까이하고, 언제나 토론하는 분위기를 가질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대학생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을 젊음을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밑거름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Coca-Cola

코카콜라 컬렉션



교수 김창호



1988년 서울올림픽



1988년 서울올림픽 종이컵



1993년 대전엑스포



2014년 소치 동계 올림픽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2002년 한일 월드컵



2008년 베이징올림픽



2012년 런던올림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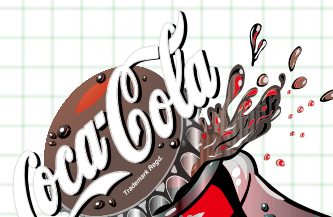


베트남 2013년 신년맞이 기념코카콜라 125주년 기념



코카콜라 125주년 기념

교수연구실에 진열되어 있는 콜라들



MOOC으로 창조하는 1인 대학교 그리고 빅북(Big Book)운동



경영대학(원)장
조 영 복



대규모 공개 온라인 강좌인 목(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의 대표적 사례인 코세라(Coursera)는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두 공동창업자 앤드류와 다프네 교수에 의해 2012년 개강했다. 그런데 불과 1년이 채 되지 않고 전 세계에 질 높은 고등교육에 목마른 500만 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전 세계에서 앞다투어 등록했다. 스마트폰 앱으로도 경험할 수 있는, 24시간 불 꺼지지 않는, 자막까지 달린, 돈 한 톨 내지 않는 명품강의는 신선함을 넘어 충격적이다. 호기심으로 등록해본 한 교과목의 수강생은 2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한 교수가 한 해 백 명을 가르친다면 200년이나 걸리는 엄청난 수의 학생을 한 학기에 가르치는 셈이다. 더 놀라운 것은 기존의 유튜브나 아이튠즈와 같이 일방적인 '방송'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교감하는 '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밀한 강의계획서는 물론이고, 한눈을 팔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퀴즈와 에세이, 그리고 다양한 읽을거리에 대한 리포트와 동료평가 등은 '모두를 위한 교육'의 미래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다양한 과제물과 포럼토론을 통과해야만 받을 수 있는 학점에 버금가는 과목 이수증(statement of accomplishment)은 이제 대학교육의 변화가 불가피함을 일깨워준다.

이 모든 변화는 이미 예고되었다. 인류가 달에 첫발을 디디던 1969년, 미 우주항공국인 나사(NASA)가 가지고 있었던 고성능 컴퓨터의 계산력을 능가하는 PC(개인용 컴퓨터)로 이제는 초등학생들이 게임을 하는 세상이 되었다. 그리고 그 PC들끼리 연대한 네트워크는 지식과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완전한 소통과 개방의 시대를 열고 있다.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찾아내는 것은 이미 당연하고, 이제는 인공지능을 통하여 궁금한 것들도 척척 알려주는 친절함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세상의 변화는 대학의 존재방식에 대한 근본적 물음을 제기한다. 대학 졸업장은 교수들이 인증한 학점을 모아 대학이 수여한다. 이런 과정은 부품을 모아 완성차를

만드는 자동차 회사의 조립라인과 흡사하다. 대학이 완성차 조립공장이라면, 학점을 부여하는 교수들의 강의는 1차 협력회사, 소위 밴드들의 부품이다. 많은 부품의 조합에 따라 스포츠카나 트럭과 같은 서로 다른 자동차들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이 수강학점의 조합에 따라 기계공학이나 경영학과 같은 다양한 졸업장(학위)이라는 완성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현대자동차의 조립공정에 해외에서 아웃소싱한 부품들이 당연히 들어가듯이 이제 대학에도 MOOC으로 받은 학점으로 강의가 아웃소싱될 날도 멀지 않았다.

이는 경제의 패러다임이 상품과 서비스경제를 넘어 경험경제(experience economy)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제품이나 서비스 그 자체는 아니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제품과 서비스라기보다는 그것이 충족시켜주는 경험이다. 경험을 얻을 수만 있다면, 굳이 제품의 소유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공유와 접속만으로도 충분함을 의미한다. 전통 드릴을 사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드릴이 아니라 드릴이 뚫어주는 구멍이다. 마찬가지로 이유로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그 자체가 아니라 자동차가 제공하는 쾌적한 이동이라는 경험을 원하며, 대학생들은 대학이 아니라 질 높은 교육이라는 경험을 원하는 것이다. 평생 8분 동안만 사용되고 쓰레기가 되고 마는 전통 드릴을 스와 트리를 통하여 빌려와 공유할 수 있듯이 대학교육도 잘하는 아웃(?)에서 빌려올 수 있다. 굳이 드릴을 소유할 필요가 없어졌듯이 교육도 마찬가지다. 소유를 넘은 접속의 시대, 빠르게 성장하는 MOOC은 2만 명의 학생이 다니는 종합대학이 아니라, 수십만 명이 접속하는 1인 교수, 한 과목대학이 성장할 것임을 예견하고 있다. 똑같은 나이, 똑같은 수준의 학생들을 불러 모아 강의실이라는 제한적 공간, 그것도 똑같은 시간에 눈을 맞추고 이루어지는 지금의 대학교육은 피터 드러키의 말이 맞다면 이제 그 수명은 13년 남았다. 더는 학생들은 대학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고등교육일 뿐이다. 박물관의 유물로 대학을 만나기 전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1인 창조 대학을 꿈꿔야 하는 이유다.

빅북 운동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자면 1971년 미국인 마이클 하트는 저작권이 소멸된(저자 사후 50년) 저작물을 모아 필요한 모든 이들과 공유하는 '구텐베르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지금까지 철학·문학·역사 등 인문·사회 분야 4만 6,000여 권을 전자문서 형태로 서비스한다. 유럽연합의 전자도서관 프로젝트인 '유로피아나'는 유럽의 문화단체 1,000여 곳에서 제공하는 460만 점의 서적·신문·동영상·지도·사진 등을 공유하고 있고, 미국의 세일러재단은 해부학과 생물학, 경제학 등의 지식공유 운동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이들은 모두 비영리 프로젝트다.

2010년 국내 최초로 시작한 '빅북(Big Book) 운동'이 지향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지식과 경험을 사적으로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 재창조를 위해 교과서를 함께 만들고 나누자는 취지다. 지난 5년간 수십 명의 대학교수들이 흔쾌히 자신의 저작권을 기부한 덕분에 '모두를 위한 교과서'가 만들어졌다. 누리집(bigbook.or.kr)을 통해 경제사상사, 통계학, 마케팅과 선형대수학, 통상학개론, 조직행동론 그리고 체육학 관련 대학교재를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개정판 문제로 질적 저하가 염려됐던 부분도 해결됐다. 25초마다 저자가 관련 저작물을 수정할 수 있게 되었는데, 정몽구 재단이 지원하는 '온드림 빅북'이 첫 대상이 될 예정이다. 최근 빅북운동본부는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새책 빅북'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값비싼 부교재 비용으로 고민하는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선 교사들의 재능 기부를 받아 초등학교 과정에 맞춘 부교재 '행복 수학'을 개발했다. 이 수학책은 국내 학생들 뿐만 아니라 북한과 중국 등 전 세계 한인학교 등에 보급된다.

빅북 운동의 핵심 동력은 '빅북 릴레이'다. 시간이 흘러 상업성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지식은 여전히 인류가 창출하는 가장 가치 있는 재화다. 저작권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공유의 세계로 나오면, 새로운 지식의 토대로 작동할 수 있는 가치와 가능성은 여전하다.

이제는 중소기업에 도전하여야 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이종진 이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창조경제의 '핵심'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약 335만 개. 전체 기업체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9%이며 근로자의 88%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어쩌면 '핵심' 이라기보다는 '전부' 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지도 모릅니다.

중소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비단 위의 수치뿐만이 아닙니다.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역시 대기업에 의존하기보다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수를 늘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핀란드 총수출의 20%가량을 차지했던 노키아가 2013년 몰락했을 때 핀란드의 국가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핀란드가 찾은 위기 극복의 실마리 역시 중소기업이었습니다. 핀란드는 노키아를 살리기보다는 오히려 노키아가 가진 IT, R&D에 대한 DNA를 세포 분열시킴으로써 중소기업 생태계를 조성하였던 것입니다. 노키아는 몰락했지만, 그의 후예들은 노키아의 DNA를 갖는 수많은 중소기업을 창출하였고 지금은 유럽의 첨단 '핀테크' 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노키아의 몰락이라는 비용을 대규모로 지불하면서 중소기업 생태계를 만들었지만, 우리는 이를 타산지석 삼아 선제로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창조경제를 성공적으로 일구어 건강하고 균형 있는 국가 경제 체질로 바꿀 수 있다면 이는 매우 희망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창조경제를 추진하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다양한 지원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소기업이 처한 상황은 내수부진 등으로 녹록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경쟁력 있는 기업이 유동성 위기로 퇴출 위기까지 놓이기도 하는데, 이를

막고자 사전적 구조조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안전판을 마련한 정책들도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자산 매입 후 임대(Sale&lease-Back)' 프로그램도 하나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일앤 리스백 방식을 구조조정에 도입하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이 영업용 자산을 매각하더라도 계속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시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고, 경영정상화가 되었을 때 되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유동성 위기 등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중소기업에는 맞춤형 지원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 주도의 여러 가지 제도 마련도 중요하지만, 창조경제란 아직 남이 하지 않은 분야를 개척하고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조경제는 기존 시장질서에 안주하기보다는 이를 파괴하거나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도 대기업만을 선호하기보다는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에 도전하는 것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의 도전 정신이 중소기업을 바꾸고, 우리나라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꾸는 즐거운 상상을 해봅니다. 젊은 이들의 용기 있는 도전을 응원합니다.



애들레이드 대학교에서의 교환학생을 마치며



최 영 임 경영 13



교환학생 가게 된 동기

1학년 겨울 방학을 마치고 한 학기 정도는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대학생이 아니면 언제 이런 기회가 있을까 싶기도 했고, 여러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대학생의 특권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교환 학생을 가기 위해서는 토플 점수가 필요한데 저는 원서 접수까지의 시간이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를 이용하여 공부했습니다. 3주간 인터넷 강의를 듣고, 말하기와 글 쓰기 영역의 유형을 익힌 후 토플을 쳤습니다. 특별히 가산점을 얻을만한 버디라거나 다른 프로그램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애들레이드 대학교를 선택하게 된 이유

사실 영어를 좀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에 교환학생을 가보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영어권 국가가 아니면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학교에서 갈 수 있는 영어권 국가 선택의 폭이 그렇게 넓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과 호주, 캐나다 이 세 곳 중에 선택하여야 했습니다. 교환을 갈 수 있었던 학교 중에 한국 사람이 별로 없는 곳으로 가고자 하였는데 그런 점에서 비교적 작은 도시인 애들레이드가 적격이었습니다. 호주 애들레이드라는 도시 자체가 한국 사람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동양인의 비율 역시 극히 낮아 선택하였습니다.



외국 친구들과의 교류

교환학생을 가기 전에는 인종차별이 있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조금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행으로 외국은 몇 번 짧게 나가봤지만 그게 다였고, 이렇게 길게 혼자 외국에서 살아야 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막연히 중학교 때 배웠던 호주의 백호주의를 생각하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호주로 출발했습니다. 막상 학교에 다니며 그런 걱정은 사라질 만큼 호주사람들 자체가 워낙 친절하고 예의 바릅니다. 모르는 것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물어보면 기꺼이 자기 일처럼 나서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저는 호주가 서양 문화권이라 생각했었고, 그래서 개인주의적일 거로 생각하고 갔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보다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먼저 손을 건넬 줄 아는 것 같습니다.

사실 생전 모르는 낯선 곳에 가서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는 부담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마다 교환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므로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산대학교에도 버디 프로그램이나 언어교환프로그램 등 교환학생을 위한 활동을 많이 마련해놓는데, 애들레이드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금요일 밤마다 인터내셔널 학생들을 위한 파티를 주최하고, 그곳에 가면 전 세계에서 온 여러 친구와 얘기도 나누고 인연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매주 파티의 토플도 달라지는데 교환을 위한 파티이다 보니 한 주는 Aussie night, 한 주는 Korean night 등등 여러 국가에서 온 학생들이 각자의 문화와 음식을 소개하는 장입니다. 그리고 교환 학생들의 단체인 ESL에서 카약킹이라든지 투어라든지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때문에 매주 주말을 친구들과 바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애들레이드 대학교는 수업이 렉처와 튜토리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렉처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교수님이 강의하면 학생들이 경청하는 형식인데 반해, 튜토리얼은 학생들이 좀 더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론 수업입니다. 렉처는 대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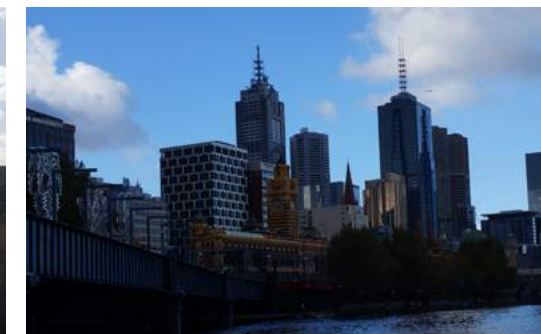
실에서 진행되어 친구들과 교류할 기회가 없지만, 튜토리얼은 10~20명 정도의 소수 정원으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친구들과 친해질 기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튜토리얼 자체가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대화하다 보면 다음 주에 만나자며 약속을 잡기도 하고 외국인 친구들을 사귄 좋은 기회입니다.



대학에서 배운 것들

처음 교환학생에 합격하고 영어를 열심히 하고 오겠다는 생각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호주에서 배운 것은 영어보다는 경험인 것 같습니다. 자취 생활도 저에게는 처음이었고, 가족들과 떨어져 지낸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낯설었지만 6개월가량의 시간 동안 보다 성숙해질 기회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와 전혀 다른 시스템의 교육을 받아본 것도 정말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수업만 해도 영어로 하는 토론이 부담스러워 튜토리얼 시간에는 말하기보다 듣기만 하는 편이었는데, 마지막 수업 즈음엔 친구들과 친해지기도 했고 교수님과 편해지기도 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세계 교환학생이 좋은 경험이였냐고 추천해줄 만하냐고 물어본다면, 망설임 없이 한 번쯤 가보라고 살면서 언제 그런 다양한 사람들과 새로운 경험을 하겠느냐고 추천해줄 것 같습니다.





이 성 균 경영 09

연일 30도를 웃도는 기록적인 무더위가 이어졌던 올여름. 동남권을 선도하는 4개 대학의 경영대학 소속 대표 학부생들이 울산에 있는 UNIST에 모여 학술교류의 장을 열었습니다. 활활 달아올랐던 바깥 날씨만큼이나 학술 탐구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했던 1박 2일간의 세미나 여정으로 효원경영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1 Preparation for Seminar

올해 처음으로 열린 '동남권 경영대학 학부생 세미나'는 BIB라는 Pet name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속어로 [만반의 준비를 하더라]라는 뜻을 가진 'Be in Business'의 약자인데요, 글로벌 시대에 언제, 어디서든지 창의적이며 전략적인 사고로 비즈니스 실전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영남권 4개 거점 경영대학(부산대, 유니스트, 포스텍, 한동대)의 Leading Undergraduate들의 네트워크를 지칭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올해 1회 행사는 '정혜(이인환 외 3명)' 팀과 제가 속한 'My Little Business(김상희 외 3명)' 팀이 부산대학교 대표 참가팀으로 확정되었고 이후 공지된 세미나 주제에 맞춰 45분가량의 발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2주에 달하는 발표 준비 기간 동안 두 팀 모두 주제선정, 스크립트 작성, PPT 작성 등을 위해 교내 도서관을 방문해 관련 논문 강독과 서베이는 물론 실제로 경영일선에서 활약하고 계신 선배님들의 조언 등을 종합하여 밀도 있고 완성도를 갖춘 발표를 위해 오랜 시간 불철주야 탐구에 매진했습니다.

2 First Impression in Seminar

올해 처음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유니스트(UNIST/울산과학기술대학교) 경영관에서 그 막을 올렸습니다. 유니스트 경영대 행정실의 배려로 참가자 모두가 콘도형 기숙사 방을 배정받아 쾌적한 환경에서 행사를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첫날에는 참가자들의 학문적 견문을 넓히고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Interpersonal Session이 열렸습니다. 해당 Session의 진행을 맡은 한동대학교 학생회에서는 학교, 학년, 성별, 주로 관심 있는 경영학 분야 등 참가자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다채롭게 6개 팀을 구성해주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팀은 각각 자신들의 팀이 Conference를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하여, 참가자 본인과 자신이 재학 중인 학교를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팀원들끼리의 Ice Breaking은 물론 다른 경영대학의 교육과정이나 교과목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소속된 팀의 UNIST 여학우는 자신의 학교에서는 반드시 복수 전공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다고 말하며, 현재 방재분야에 관심이 많아 재난공학을 복수전공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추후 자신은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분야에서 종사하고 싶다는 소개를 들으며 경영학이 다른 학문과 만났을

때 나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진로방향에 대해서도 저 나름대로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케냐에서 중고교 시절을 보내고 와서 수준급의 영어를 구사하던 한동대 학우님, 학과의 교육과정이 산업경영공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수요측정이나 빅데이터 분석을 위주로 공부하고 있다는 포스텍 학우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번 세미나가 우리 학교와 나 자신의 경영학적 역량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3 Team Competition

간단한 Ice breaking을 마친 뒤, 각 팀은 첫날의 메인 행사인 Team Competition을 가졌습니다. 이 Session은 3시간이라는 짧은 제한시간 동안 제시된 주제, '2015 소비자트렌드를 반영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제안'의 솔루션을 각 팀원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었습니다. 쉬위 보이면서도 절대 만만치 않은 주제의 등장으로 참가자들이 웅성거렸지만 이내 제한시간이 시작되자 각 팀원은 노트북과 필기구, 머리를 맞대고 격렬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같은 경영대학 소속이지만 학교마다 방점을 두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분야가 다르다 보니 참가자들과 함께 이야기

를 나누는 과정에서도 참 흥미로운 점이 많았습니다. 각자 학교에서 배운 다양한 경영학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뻗어나가는 것을 보며 마치 참신한 결과물을 보는 것 같아 저에게는 Team Competition이 상당히 의미 있고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산업경영공학을 기반으로 한 수요측정 분야에 관심이 많다



는 포스텍 참가자가 SNS 버즈량 분석을 통해 최근 ‘먹방 (먹는 방송)’이라는 키워드가 2015 트렌드로 형성되고 있다는 결과를 내놓았을 때 경영학을 통해 이러한 역량을 발휘할 수도 있구나 하고 큰 깨달음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속한 팀에서는 ‘20대 여성들’을 target으로 하여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구현하기 위한 레시피를 제안’하고 ‘이를 반제품으로 만들어 배달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제안하겠다는 구체적인 뼈대를 완성했습니다.

이후 경영정보학을 배우고 있는 UNIST 참가자가 어플리케이션의 형태와 과정의 설계, 국제물류에 관심이 많은 한동대 참가자가 배송과정과 식자재 조달방안을, 브랜딩에 관심이 많은 제가 브랜드이밍과 브랜드이미지 형성을 위한 방안을 각각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각자 학교에서 교육받은 전문화되고 특화된 부분을 바탕으로 하여 하나의 제안서를 완성하는 협업과정이 저에게는 실제 경영일선에서 우리 팀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도록 해주었습니다.

제한시간이 끝난 뒤 각 팀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UNIST 경동홀로 이동해 Team 발표를 들었습니다. 우리 팀 이외에도 다른 팀들 모두 새로운 소비자트렌드를 반영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많이 제안해주었습니다. 지금 기억나는 내용으로는 ‘과식육 트렌드를 반영한 허세 충족(고가품 일일 대여) 서비스’, ‘스스로 여행일정을 작성하는 DIY 가이드 서비스’, ‘유명 먹방 프로그램의 셰프 레시피대로 음식



식을 조리해 배달하는 서비스’ 등인데, 들으면서도 무릎을 탁 칠 정도로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다들 훌륭한 결과를 내놓는 참가자들을 보며 이들의 역량이 결코 녹록지 않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첫날의 밤이 저물어 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상당히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각 경영대학의 대표로 출전한 6개 팀 모두가 본 행사인 세미나 발표장에서 PPT와 스크립트 최종 점검, 옷매무새 정리에 집중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준비한 발표 주제는 한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학적 관점의 방안이었는데 경영학적 관점이기는 하지만 각 대학이 배우는 경영학의 범위나 내용이 판이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과연 다른 학교에서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올까 상당히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본 행사에 앞서 올해 주관 대학교인 유니스트 정구열 경영대학장님의 축사와 함께, 유니스트에서 매니지먼트를 전공하고 계신 최영록 교수님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이후 학교별로 30분의 발표, 15분의 질의·응답과 토론을 했습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부산대 ‘성혜’ 팀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제조업에 적용하여 생산 관련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해주었고, 한동대 ‘아이티어 (Itear)’ 팀에서는 IT트렌드 중 하나인 핀테크 활성화를 주장하며 이러한 산

업이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전자금융거래법과 크라우드펀딩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외에도 청년스타트업을 강조한 유니스트 ‘경제 활명수’ 팀의 발표도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거의 막바지에 발표를 맡은 저희 팀은 능력과 업무에 대한 책임만 명확하고 사람에 대한 책임이 부족하여 기술직이나 연구직이 홀대받는 한국의 HR 시스템을 꼬집으며, 인적자원에 대한 주인의식을 세우기 위한 통합적 HR 시스템의 강조를 주장했습니다.

학교마다 배우는 경영학의 내용이나 같은 내용을 바라보는 관점이 미세하게 다르다 보니 질의·응답 시간에도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질문이 많이 오갔고, 평가를 위해 방문해주신 타 대학의 교수님들께서도 발전적인 코멘트를 많이 해주셔서 참가자 입장에서는 무언가를 많이 얻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같은 경영학을

기반으로 하여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지만, 각자 관심 있는 세부학문 그리고 소속 경영대학의 커리큘럼과 연계된 날카로운 질문은 참가자들 모두가 되새겨 두고 추후 탐색해봐야 할 내용으로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모든 발표가 끝난 뒤, 4개 대학의 참가자들 모두가 1박 2일간의 험난한 여정을 마쳤다는 소중한 의미로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비록, 올해의 행사는 첫 행사였기도 했고 학생들이 주관한 행사라 다소 미비한 점도 노출됐지만 분명 저에게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4학년인지라, 다음번에 또다시 이런 기회가 찾아와도 참가할 수 없다는 것이 매우 아쉽지만, 앞으로 더 많은 효율적인 경영인들이 세미나의 문을 두드리 나 자신의 역량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반대로 생각한 기업



- Korea + Laos, 라오스 최대 민간 기업 라오스 모범기업, 최우수기업 선정
- 라오스 대학생들이 입사하고 싶은 기업 1위
- 모기업이 KDC(Kolao Developing Company)로 자동차, 오토바이 조립, 생산, 판매하여 라오스 자동차 시장 40%, 오토바이 시장 30% 점유
- 2010년 한상 기업 최초 코스피 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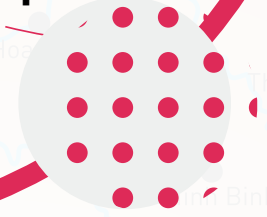


코라오(KOLAO)를 선택한 이유는?

- + 다른 기업들은 라오스를 외면했지만, 철저한 현지화와 차별화 전략으로 시장진입에 성공하여 지속적 성장을 해왔기 때문
- + 제품 개발부터 AS까지의 현지화 전략과 라오스 내 KOLAO의 위상을 실감하고 오는 것이 탐방 포인트

내륙국, 적은 인구, 높은 물류비용, 정치적 상황 때문에
외면받는 라오스를 선택.

‘작은 시장이라도 전체를 독차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작은 시장이 아니다.’



코라오(KOLAO) 현지화 전략

- + 고객 중심의 디자인/품질/가격 정책
- + 전국 규모 네트워크 구축
- + 현지 인재 채용
- + 선진화된 고객 서비스
- + 시너지 효과
- + 현지 사회 환원



오토바이 현지화 전략

- + 비포장도로가 대부분인 라오스의 도로 시장
- + 최고 시속 60km 이상을 달리지 못하므로 저렴하고, 고장 없고, 수납공간 많은 오토바이가 필요했기 때문에 바퀴가 얇고, 수납공간 많은 오토바이 생산을 하기 시작함



코라오(KOLAO)의 문제점&해결방안

- + 고급 인력 부족
 - ▶ 산학장학생 제도 시행, 태국 인력 사용
- + 현대/기아차 중심의 매출 구조
 - ▶ 자체 브랜드 차량 개발 및 판매
- + 라오스 중심의 사업 구조
 - ▶ 국외 시장 개발 및 투자



참가자

김문수(경영 09), 강은혁(경영 10), 서혜민(경영 13), 권민주(경영 14)



참가 동기

나는 매년 초 한 해의 타이틀을 정한다. 그해에 이루고 싶은 것 하나를 정해 타이틀을 삼는데 시간이 지나 돌아볼 때 한 해라도 의미 없는 해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2014년은 '가장 즐거운 해'로 만들고 싶었지만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고, 그 타이틀은 2015년으로 이어졌다. 방학이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학교에 온 나는 경영관 건물 안을 걷던 중 '2015년 경영대학 동계 해외탐방 경진대회' 포스터를 보게 되었다. '발표만 잘하면 공짜로 해외 보내준다?'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대회에 참가하겠다고 결심했지만 '입상해서 해외 가야지'라는 생각뿐 어떤 것도 준비되어있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대회 준비에 있어 한 가지 기준을 두었다. "재미있자."기준에 따라 항목들의 우선 순위가 정해졌고, 그에 따라 대회 준비를 해나갔다.



해프닝

모든 팀원이 함께 탐방을 갈 수 있는 기간은 본선(1월 22일) 직후부터 수강신청 전까지인 1월 23일 ~ 2월 3일, 총 12일뿐이었는데 그마저도 본선 일정이 26일로 연기되면서 비행기 표를 구하지 못해 입상한다 해도 탐방을 가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실시간으로 잔여 좌석을 확인했지만, 잔여 좌석이 없어서 '포기해야 하나?' 좌절하던 27일 오전, 누군가 항공권을 취소해서 극적으로 29일 출국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탐방 대상 기업인 KOLAO 본사, 직영점 등을 찾아가 기업 탐방을 하면서 라오스에서 여행도 했다. 본선 프레젠테이션을 하던 날, 서문식 교수님께서 "탐방뿐 아니라 여행도 공부다. 대신 아는 만큼 보이니까 가기 전에 공부 많이 해라."는 말씀대로 여행 중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며 공부한 것들이 정말 많이 보였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픽업트럭을 보기 힘들지만, 유통 시스템이 발달하지 못한 라오스에서는 전체 차량의 절반가량이 픽업트럭이었다.



느낀 점

라오스라는 나라를 다녀온 것과 경진대회에서 상을 받았다는 것보다 나에게 더 의미 있는 것은 한 달 여간 함께 준비하고 일주일간 함께 해외에 다녀온 특별한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이다. 인연은 첫 시작보다 지켜나가는 것이 더 힘들고 중요하지만 나는 많은 시간이 흘러도 기억에 남을 소중한 추억은 인연을 언제든 더 굳게 이어줄 것이라 믿는다. 경진 대회가 나에게 준 다른 선물은 깨달음인데, '강한 동기는 과정을 즐기게 해주며, 결과를 보장한다.'는 것과 '어떤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면 하위 목표들을 달성하기는 쉽다.'는 것이다. 이 말들은 어릴 적부터 질릴 만큼 많이 들었던 말들이지만 그다지 와 닿았던 적은 없었는데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이 말들이 크게 와 닿았다. '라오스에서 팀원들과 특별한 추억을 쌓겠다.'는 목표가 뚜렷하고 강하다 보니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과정은 휴가를 준비하듯 즐거웠다.

대회 전날 프레젠테이션 연습을 12시간 이상 하면서도 힘들지 않았다. 상금을 보고 시작했던 경진 대회였지만 이 대회가 나에게 남긴 건 특별한 사람과 소중한 경험이다. 탐방 경진 대회를 비롯한 유사한 대회들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상금이나 스펀일 것이다. 하지만, 대회를 준비할 거라면 시간이 지난 후 그 대회가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로 남게 될 것인지를 생각하고 준비할 때 과정의 고통은 줄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부산국제금융센터(Busan International Finance Center, BIFC)는 동북아 최고의 해양·파생금융 특화 중심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차세대 금융 복합센터이다. 부산국제금융센터 내 입주기관으로는 한국거래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남부발전,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한주택보증, 신용보증기금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금융·공공기관이 입주하며 금융단지 내 개별 사옥 입주 기관으로는 부산은행, 기술보증기금,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있다. 부산국제금융센터가 대한민국과 부산에 미칠 경제적 파급 효과는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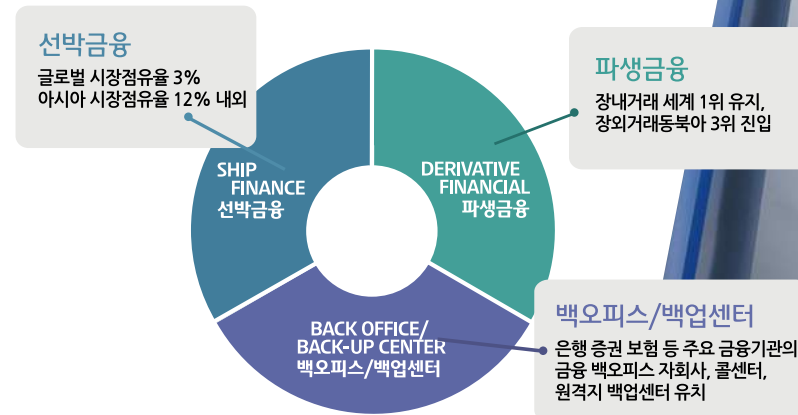
BIFC육성 기본계획

[부산금융중심지의 비전]

“해양금융·파생금융·백오피스/백업센터 특화 금융중심지”

- ▶ 금융중심지 관련 국내외 환경변화와 정책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부산이 보유하고 있는 비교우위 요소를 최대한 활용
- ▷ 동북아 항만 로지스틱 허브, 주변의 선박건조회사 등을 중심으로 하는 선박금융 특화
- ▷ 부산 소재 한국거래소(KRX)를 중심으로 파생금융 특화
- ▷ 서울과 상호 협력·보완하는 측면에서 서울에 비해 비용면에서 상대적인 강점이 있는 백오피스/백업센터에 특화

[부산금융중심지의 목표]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KRX)는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원활한 매매 및 효율적 시장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2005년 1월 27일, 기존의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코스닥증권시장, 코스닥위원회 등 4개 기관이 통합되어 설립된 주식회사이며 본사 사옥은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2(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 위치하고 있다.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한 후 지난 10년간 한국거래소(KRX)는 한국자본시장의 발전과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에 핵심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부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한 바 10년간의 임차사옥 기간을 마감하고 BIFC에 새 터전을 마련, 본격적인 부산 시대의 막을 올렸다.

한국거래소(KRX)는 “문현동 시대” 개막을 계기로 금융중심지 부산과 함께 “글로벌 Big 7 거래소” 진입을 달성하여 한국자본시장을 세계적인 시장으로 발전시키고, 특히 탄소배출권시장, 원-위안화 선물시장 개설 및 글로벌 연계시장 확대 등 미래 성장엔진 발굴을 통해 부산이 파생금융의 메카로 도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신사옥에 마련된 홍보관, 금융교육실 및 도서관을 부산시민에게 개방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 증진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캠프코는 선진 종합자산관리로 국가 경제의 지속성장을 추구하는 국가 자산 종합관리기관으로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회사 부실채권 인수, 정리 및 기업구조조정업무,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지원업무, 국유재산관리 및 체납 조세정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준정부기관이다.

‘금융과 공공자산의 가치를 높여주는 국민경제 도약대’라는 비전으로 특히 지난 IMF 경제위기 당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부실채권 정리 및 금융구조 조정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2009년 런던에서 열린 G-20 금융정상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의 국제적 모범사례로 소개되었다.

캠프코는 부산시대를 맞이하여 지난 1월부터 부산지역 대학생들에게 직장체험 기회의 일환으로 현장실습 인턴십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인재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이전 공공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한 부산 대학생 대상 합동 채용설명회를 열고 기업구조조정, 선박편드, 국공유지개발 및 관리 등 캠프코 업무와 대학 간의 산학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캠프코에서 주관하는 국제회의 등을 부산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투자 인프라를 제공하여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한다’ 는 미션과 ‘세계 일류 종합증권서비스 기업’ 이라는 비전 아래 1974년 설립된 종합증권서비스 기업으로서 3천조 원에 이르는 증권을 예탁받아 안전하게 보관하고 증권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다양한 증권상의 권리를 정확히 행사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재산을 충실하게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본시장의 다양한 참가자들에게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증권거래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국민경제 발전의 기초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열정(Passion), 원칙(Principle), 전문성(Professional)의 경영이념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 일류의 예탁결제시스템 구축, 경쟁력 있는 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글로벌 자본시장 비즈니스 강화, 부산 본사시대의 지속적인 경영혁신의 4가지 전략목표를 가지고 있다.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부발전은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01년 4월 2일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전 부문이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이다. 핵심발전소인 하동 화력을 비롯한 7개 사업소에서 9,238MW의 발전설비를 보유, 운영하고 있으며 삼척그린파워건설본부에서 2,000MW의 설비 건설 중에 있다. 본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96-1 미래에셋타워빌딩 4, 6, 7, 10, 11, 13, 14, 15, 17층에 있었으나 2014년 10월에 부산 문현 금융단지 부산국제금융센터(BIFC)로 이전하였다. 한국남부발전은 안정적 전력공급, 미래 지속 성장추구, 국민경제 발전 기여라는 설립 목적에 맞게 ‘Global Top 10 Power Company’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안정적인 발전운영 신규 전원 적기 확충, 이익 창출 극대화를 위한 원가구조 등을 전략과제로 국내를 넘어 세계를 대표하는 에너지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서민 중심의 주택금융 공급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라는 미션과 ‘서민과 함께하는 최고의 주택금융 전문기관’ 이라는 비전아래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4년 3월 1일 출범한 공기업이다. 보증자 리론과 적격대출 공급, 주택보증, 유동화 증권(MBS, MBB) 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서민의 주택금융 파트너이자 정부의 주택금융 정책을 지원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설립 후 10년을 서울에서 보냈고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부산에서 퍼져가는 대한민국 주거행복’ 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신입직원 채용 시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를 실시하고 대학생에게는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부산지역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할 계획으로 2015년도 신입직원 채용시 총 채용인원의 10% 이상을 부산 지역인재로 채용할 방침이며, 부산 지역인재 고용 확대를 위해 앞으로 채용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형 인턴, 근로 장학생을 선발하여 현장실습, 진로탐방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 대학생의 취업역량 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Korea Housing Guarantee Co.,Ltd)는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각종 보증을 통하여 주택분양계약자 및 입주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수업을 지원함으로써 주택건설을 촉진하여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준 시장형 공기업이다. 1993년 4월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 설립되어 1999년 6월 대한주택보증(주)로 전환설립등기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주택도시기금의 전담운용기관으로 지정되어 2015년 7월 1일 주택도시보증공사로서 개편할 예정이다.

2014년 말, 부산 문현 금융단지 부산국제금융센터(BIFC)로 대한주택보증 본사가 이전되었으며 정부정책 지원, 서민 내집마련 지원, 주택업계 지원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한주택보증 신청사에는 전락기획실, 경영관리실 등 12개 본사 부서 전체와 PF금융센터 등 4개 현업 부서가 입주했고 이전인원은 286명으로 영업지사·센터 등을 제외한 전원이 부산으로 이전했다.



부산은행

부산·울산·경남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 신창동, 1982년 6월 범일동 이전, 그리고 현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단지 내에 본점(개별사옥)을 두고 있으며 자본금 3억 원, 임직원 82명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총 269개의 영업점을 두고 있다.

2009년 12월에는 국내 지방은행 최초로 전선서버 가상화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2010년 3월 국내 은행권 최초로 ‘예상신용 평가시스템’ 을 도입했다. 2011년 2월 지방은행 최초로 200억 엔 사무라이 채권 발행에 성공했고, 3월에는 (주)BS금융지주 설립 인가를 취득했다. 그 외에도 환경, 문화, 교육 분야에 걸쳐 지역사회 공헌에 크 이바지를 하고 있는 지역대표은행이다.



해양금융종합센터

해양금융종합센터는 조선 및 해운산업 세계 1대 강국 유지 및 진입을 위한 Total Solution Provider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글로벌 해양 비즈니스 니즈(needs) 충족을 통한 포괄적 해양금융(선박, 해양플랜트, 해운, 기자재) 제공을 위하여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3개 기관이 협업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20층에서 22층에 입주한 해양금융종합센터에는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3개 정책 금융기관의 선박금융 기능이 이관하여 해양금융 전문인력 77명이 근무하게 되었다.

이번 입주를 계기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는 참여기관 협의체인 ‘해양금융협의회’ 와 고객 편의를 위한 ‘원스톱 상담센터’ 등을 통해 부산을 해양금융 허브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KIBO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1989년 4월 1일,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대출을 목적으로 기술신용보증기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이다. 현재 영업본부 5개와 지점 52개를 두고 있고,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단지 내에 개별사옥으로 입주해있으며, 단지 내 자산규모는 총 3.2조 원에 이른다.

대표적인 주요기능 및 역할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보증 지원, 각 기업의 기술 평가와 경영 지도, 보증연계투자 지원, 유동화 회사보증(P-CBO), 구상권 행사, 신용보증제도의 조사 연구이다. 그 외에도 창업멘토링이나 벤처창업교실을 통하여 예비 창업가들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이노비즈(Inno-Biz; Innovation과 Business의 합성어)인증과 경영혁신형 비즈니스 인증을 통하여 국제경쟁력 있는 우수기업을 위한 정책적인 육성 제도 또한 갖추고 있으며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동력 창출의 일익에 일조하고 있는 기술금융 전문지원기관이다.

참고자료

- <http://www.bifc.kr>
- <http://www.krx.co.kr>
- <http://www.kamco.or.kr>
- <http://www.ksd.or.kr>
- <http://www.kospo.co.kr>
- <http://www.hf.go.kr>
- <http://www.khgc.co.kr>
- <http://www.busanbank.co.kr>
- <http://www.mfcenter.or.kr>
- <http://www.kibo.or.kr>
- <http://fssblog.com/220133378835>
- BCCI 부산상의 540호

부산국제금융연수원

부산국제금융연수원

부산국제금융연수원은 부산이 선박·파생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이래로 금융전문 관련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함에 따라 국제금융 등에 특화된 금융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9월에 개원하였다.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한국금융연수원, 보험연수원 총 7개의 기관이 속해있는데, 개원을 통하여 금융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한국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부산·울산·경남 지역 소재 금융회사 직원 및 젊은 인재들에게 금융실무 및 금융지식에 대한 교육 제공뿐만 아니라, 조선·해운사 직원들에게도 필요한 전문 financing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한국 조선업과 해운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BIFC

PNU School of Business

발전기금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이 새롭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경영대학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창조적 역량을 갖춘 경영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과 차별화된 발전 모델을 창출하고 시대의 변화에 걸맞는 대학발전 전략을 마련하여 교육연구인프라 혁신과 연구경쟁력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은 2009년 더 타임스 QS평가에서 국내 종합대 6위 등 세계 속의 명문대학으로 비상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강력한 혁신과 교육연구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경영대학의 오늘이 있기까지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신 동문들과 각계 시민 여러분 그리고 기업경영자께 깊이 감사드리며,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장 조영복



발전기금 사용목적

+ 장학기금_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장학금 지원

최우수 장학생 : 전국순위(0.5%) 이내의 최우수 인재
 우수 장학생 : 전국순위(2%) 이내의 우수 인재
 국제교류 장학생 : 우수학생 해외연수 지원 및 교환학생 지원

+ CPA수험생지원_공인회계사 배출을 위한 장학금 지원

CPA 2차 합격자에게 졸업까지 등록금 전액 면제 함
 CPA 1차 합격자에게 포상금 지급
 방학기간 전국 유명강사 초청 교육 프로그램 운영
 CPA 준비생의 24시간 학습공간 확보를 위한 교육환경정비
 CPA 1차/2차 합격자에 대한 학생 국제교류 프로그램 지원

+ 학술연구기금_교수의 연구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SSCI 최우수 논문포상: 세계 우수 논문지 게재 논문
 세계적 석학 초빙 사업: 연구와 교육을 위한 세계적 석학 초빙

+ 국제교류기금_글로벌화를 위한 학생교류와 외국인 교수 유치

외국인 교수 확보사업 : 전공 영어강의 확대와 외국인 교수 초빙
 국제학술대회 : 연구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학술대회 지원

+ 국제경영교육인증(AACBS)기금_경영학 교육시스템 확립

글로벌 기준의 경영학교육의 국제인증 필요
 경영학교육 기반확충에 2011년부터 5년 소요

+ 대학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기금_각종 대학운영개선과 건물 및 첨단 강의시설 확충

대학운영개선기금: 대학 장기발전을 위한 운영 개선
 경영대학원 전용건물 건설 : 경영전문대학원의 연구동 등 전용건물
 첨단강의시설 : 멀티미디어 강의실, 교육기자재 등 첨단강의시설확보

경영 발전기금 출연방법

경영 발전기금 - 경영대학(원)의 발전을 위하여 출연자가 지정하시는 사업에 자율적으로 출연하는 기금입니다.
 이 기금을 출연자가 지정하신 목적에 따라 경영대학 발전기금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출연하신 분에게 기금 운영결과를 안내해 드립니다.

+ 경영 1인 1계좌 갖기운동 · CPA 1인 1계좌 갖기 운동

출연자가 매월 1만원씩 일정기간 자동이체로 불입하는 방법입니다.

+ 경영 등록금 한번 더 내기 기금

등록금을 한번 내어 후배들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출연자가 장학금의 지급시기와 수혜조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경영 특별목적기금

출연자가 경영대학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기금을 출연하는 방법입니다.
 출연자가 기금명칭을 정하고 해당기금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목적성 축적기금

출연자가 지정한 목적의 기금으로 축적하고, 이 기금의 수익금으로 지정된 목적사업을 수행합니다.

기금 출연자에게 대한 예우

법정기부금 영수증 발급(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세금 감면 혜택)

+ 미리내클럽(100만원 이상) 예우 학교홍보물 우송 / 부산대학병원 할인

+ 응비클럽(1,000만원 이상)추가 예우 출연자명 본관 벽면 각인 보존 / 도서관 이용증 (열람, 대출) / 차량 무상 출입 등록 (1대)

평생교육원 수강료 30%할인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 국제언어교육원 수강료 30%할인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대학만찬 등 학교행사 초청 (연 1회) / 청남 오제봉 선생 서예 병풍 증정 (3,000만원 이상)

+ 금정클럽(1억원 이상)추가 예우 감사패 증정 (총장)

+ 문창클럽(5억원 이상)추가 예우 명의 건물명 헌정 또는 흉상, 부조상, 공덕비 건립 (4중 택1)

+ 효원클럽(50억원 이상)추가 예우 부산대학교병원 VIP 평생무료진료권 증정

상고대학 · 경영대학원 발전기금

1993년 3월~2010년 8월 (단위 : 천원)

+ 금정클럽(1억원 이상)

김종갑 100,000

+ 응비클럽(1,000만원 이상)

노대섭	48,000	김종태 대표	20,000	김승영 (주)금융 대표	10,000
김일곤 경제학과 교수	30,000	김태홍 (주)정관 대표	20,000	조관승 회계사	10,000
노선호 풍경정화(주) 대표	30,000	최신형	18,000	최종열 경영대학 교수	10,000
권청길 웰드하우스 대표	30,000	오명열	17,500	손태영 (주)케이씨 대표	10,000
이근철 (주)삼정 대표	30,000	강판수 (주)청강 대표	15,000	정판덕 새부산관광 대표	10,000
우한호 (주)피앤에이 대표	30,000	구자용	10,000	이장성 (주)아남약품 대표	10,000
이상환 세기아케마 대표	30,000	이상일	10,000	박태복 (주)티비카본 대표	10,000
김영주 유창중건설 회장	30,000	이원태 (주)경일통상 대표	10,000	최춘식 AMP동창회장	10,000
구자봉 (주)미래파크 대표	20,000				

+ 미리내클럽(100만원 이상)

김정호 (주)경국 대표	5,000	이해주 경제학 명예교수	2,000	임정덕 경제학부 교수	1,000
김일우 브릿지증권 지점장	3,500	최정환 우성식품 대표	2,000	송창년 대광닛불(주) 대표	1,000
이정상 보생 대표	3,000	박철병 성도회계 이사장	2,000	장지환 성도회계 이사장	1,000
박수만 용진건설(주) 대표	2,500	방수환 AMP52 대표	2,000	곽선화 경영대학 교수	2,500
황보석기 AMP50 대표	2,500	김영식 AMP골프회장	1,000	김태형 경영대학 교수	1,386
박용득 용진건설 대표	2,500	안태원 (주)한아 대표	1,000	조영복 경영대학 교수	1,800
류 열 일신산업 대표	2,000	김상철 시티엔지니어 대표	1,000	지성권 경영대학 교수	1,500
이재술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2,000				

+ 등록금 한번 더 내기

교 원				동 문			
최종열	1,500	김호범	1,500	김형우	1,500	김은홍	2,000
황규선	5,000	신종국	1,500	조한제	1,500	옥치장	2,000
곽선화	1,500	방호열	1,500	정윤재	1,500	박기순	1,500
김창수	1,500	김진욱	1,500	김지완	4,500	정계섭	1,500
문병근	1,500	이갑수	1,500	권혁태	2,000	김형진	1,500
하충룡	1,500	강원진	2,000				
이균봉	1,500						

+ 단체 출연

최고경영자과정(AMP) 12~57기 약 400,000									
33기	27,000	41기	35,000	46기	23,000	51기	29,500	56기	17,000
36기	23,500	42기	26,500	47기	34,000	52기	21,500	57기	26,000
37기	29,500	43기	35,000	48기	29,500	53기	29,000	경맥 75동기	10,000
39기	30,500	44기	23,000	49기	29,500	54기	17,500	전문경영자 2,3기	10,000
40기	27,500	45기	32,500	50기	24,500	55기	26,500	MBA 37기	2,500

+ 기관 출연

부산발전연구원 원장 김일근 임정덕	38,500
(재)울산발전연구원 원장 서근태	29,000
농협 부산대지점 지점장 전동배 김부근 김동현 각 15,000	45,000

+ 마라톤 후원금(33,269)

구자봉	10,000	MBA 34기~40기 김태곤 등 220여명
이병걸	1,000	AMP 45기~54기 박종영 등 80여명
(주)신화사	1,000	Techno-MBA 1기~3기 권오중 등 24명

+ 매월 자동이체

김유일(10만원, 2008년 6월 부터)

경영대학(경영학부) 발전기금 출범 이후

2010년 9월~ (단위 : 천원)

경영학부는 2008년 6월부터 '부산대학교 발전기금' 내에 '경영학부 발전기금'을 독자적으로 조성하여 왔으며, 대학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경영대학 발전기금'으로 확대하여 관리하기로 하였다. 경영대학으로 독립한 후 경영대학 발전기금위원회를 구성하고 발전기금 조성대상을 AMP과정만이 아니라 MBA과정과 경영학부를 졸업한 동문 및 일반 지역 유지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경영대학 출범 후 경영대학의 발전기금을 출연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경영 1인 1계좌 갖기 운동·CPA 1인 1계좌 갖기 운동'을 더 활발하게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 많은 동문들의 동참을 기대하고 있다.

+ 금정클럽(1억원 이상)

정준수 | 경영대학 명예교수 100,000 (경영인산장학기금으로 출연)

+ 웅비클럽(1,000만원 이상)

김성자 베델농산 대표	10,000	최병오 패션그룹 형지 회장	20,000	김종관 경영대학 교수	10,000
김유일 경영대학 교수	10,000	AMP 총동문회	30,000	2012 MBA 원우회	10,270
안 승 APM28대 총동창회장	10,000	전상우 MBA 43	10,000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10,000
최종열 경영대학 교수	10,000	신종국 경영대학 교수	10,000	강병춘 금오기전	11,000
주영찬 APM 60	10,000	임동찬 니오여학원	11,366	(주)지이엠	10,000

+ 미리내클럽(100만원 이상)

문성욱 용원개발 대표	5,000	김재오 AMP 59	1,000	최윤영 MBA 42	1,000
김경희 AMP 59	5,000	배근호 AMP 59	1,000	곽지영 MBA 43	1,000
송미란 MBA 41	5,000	정동순 MBA 41	1,000	김영미 MBA 43	1,000
박철병 성도회계법인 대표	5,000	문병혁 MBA 41	1,000	김승태 MBA 43	1,000
장지환 성도회계법인 대표이사	5,000	이우영 경영사 상무이사	1,000	김종범 MBA 43	1,000
강종민 한창엔지니어링 대표	5,000	손영표 Mindsystem 대표	1,000	김창완 MBA 43	1,000
MBA 44기 원우회	5,000	김대철 AMP 55	1,000	류제민 MBA 43	1,000
부산대 상대 동문 교수회	4,000	조강래 AMP 55	1,000	박기원 MBA 43	1,000
김정교 경영대학 교수	3,000	이우식 AMP 55	1,000	박동익 MBA 43	1,000
이상래 AMP 59	3,000	진병수 AMP 55	1,000	안지홍 MBA 43	1,000
민병권 AMP 59	3,000	김용오 AMP 55	1,000	이 인 MBA 43	1,000
정희자 MBA 41	2,000	김영식 MBA 42	1,000	이재용 MBA 43	1,000
손 인 MBA 동문회장	2,000	김동률 MBA 42	1,000	이창규 MBA 43	1,000
조규성 MBA 42	2,000	박미현 MBA 42	1,000	강민권 거림베스트	1,000
김영순 교직원	2,000	양길석 MBA 42	1,000	권란희	1,000
세무법인 WE동래	1,290	윤성차 MBA 42	1,000	김현우	1,000
황건호 전국투자협의회장	1,000	조비송 MBA 42	1,000	최민호	1,000
박성훈	1,500	채창호 MBA 42	1,000	노사관계전문가과정 5기	2,300
설영오	1,000				

+ 소액기부자(100만원 이하)

김종세 MBA 42	500	김현준 MBA 44	300	이채성 MBA 44	300
전경준 MBA 44	500	문주상 MBA 44	300	이현욱 MBA 44	500
김정석 MBA 45	500	박기호 MBA 44	500	정명진 MBA 44	500
박미숙 MBA 43	300	신민화 MBA 44	300	조현진 MBA 44	300
이균봉 경영대학 교수	200	신영섭 MBA 44	200	진순미 MBA 44	200
문희준 MBA 42	200	유용준 MBA 44	300	채현식 MBA 44	300
권춘오 MBA 44	500	윤미라 MBA 44	300	최정진 MBA 44	300
김민수 MBA 44	300	이기만 MBA 44	500	홍승표 MBA 44	300
김범석 MBA 44	200	이상부 MBA 44	500	홍정혜 MBA 44	500
김부미 MBA 44	300	이완범 MBA 44	300	황경선 MBA 44	500
김준우 MBA 44	500				

+ 단체출연

최고경영자과정(AMP)					
58기	15,000	59기	25,000	60기	30,000
61기	46,000	62기	23,000	63기	40,000
64기	50,000				

+ 경영 1인 1계좌 - 1계좌는 매월 1만원씩 자동이체로 불입(계좌수)

교 수					동 문				
강성훈 (3)	김동일 (1)	김종기 (1)	서문식 (3)	이균봉 (1)	김홍근 (1)	한미영 (2)	김두성 (5)	김강수 (1)	이동은 (1)
고광수 (5)	김명중 (1)	김진우 (3)	엄철준 (3)	이장우 (3)	손 인 (10)	김상철 (2)	김승태 (5)	곽지영 (5)	박정일 (3)
김유일 (10)	김진욱 (1)	옥기울 (3)	장활식 (1)	최중서 (3)	김일우 (3)	전상우 (10)	박인규 (2)	김정열 (5)	전우철 (1)
김창호 (1)	이찬호 (1)	조영복 (3)	최종열 (10)	최상문 (3)	김형석 (2)	정광택 (5)	박기원 (1)	반태옥 (5)	김진영 (2)
홍태호 (3)	최수형 (1)	곽춘중 (1)	김기석 (1)	김정교 (1)	이종훈 (1)	박윤봉 (5)	최해관(2)	오상진 (1)	진은경 (3)
					이진호 (2)	강정훈 (5)	전경준 (2)	이재훈 (3)	

+ CPA 1인 1계좌 - 1계좌는 매월 1만원씩 자동이체로 불입(계좌수)

삼일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남일회계법인
이병찬 (10)	구태우 (3)	김병선 (1)	문병현 (1)	이지희 (1)	김휘학 (5)	김동휘 (3)
정민수 (5)	오상표 (3)	홍영표 (1)	박진호 (1)	정원호 (1)	박일환 (3)	장호일 (3)
조정환 (3)	정동수 (3)	강병욱 (1)	성유득 (1)	조아라 (1)	공경태 (1)	조용환 (3)
성낙필 (3)	허재혁 (3)	권한수 (1)	이상후 (1)	천정봉 (1)		
공병진 (3)	최정미 (1)	김도균 (1)	이주식 (1)	허태원 (1)	성도회계법인	동원회계법인
진은경 (1)	김민희 (1)	강헌태 (1)	김영수 (1)	이광희 (1)	박근서 (10)	나용주 (5)
손정화 (1)	김정동 (1)	박상욱 (1)	이동계 (1)	이웅기 (1)	예상우 (5)	강명근 (2)

+ 현물 기부 임동찬 | AMP61 인터넷강의 수강권 300매(4,500만원 상당), 토익교재 250권(300만원 상당)

+ 경영대학 발전후원회 지원

박은주 (주)엘큐어	18,000	전상우 두산인프라코어(주)	5,000	김태명 (주)케이시에스	2,000
박창수 (주)씨에스티	12,000	김종현 (주)펠리테크	3,000	최태은 SKC(주)	2,000
부산상대 동문	10,049	효원회	1,000	박상용 MBA 44	500
MBA 45기 원우회	10,000				

+ 경영대학 발전후원회 지원

배건우 MBA 45	800	전인수 MBA 45	500	배병수 MBA 45	200
김명수 MBA 45	200	채진호 MBA 45	200	정희근 MBA 45	200
김경래 MBA 45	200	함란화 MBA 45	200	오승주 MBA 45	200
김 석 MBA 45	200	김도형 MBA 45	200	이종현 MBA 45	200
김 직 MBA 45	200	최종서 경영대학장, AMP 64-65	30,000		

+ 2012 사랑의 김장 담그기 후원

AMP			
강병중 넥센월석문화재단	10,000	이영희 금호	10,000
		조성제 원광종합건설	5,000
최병오 패션그룹 형지	10,000	이관길 AMP 총동창회 회장	2,000
		AMP 62기	3,000

MBA			
손 인 하나인치과병원	10,000	경석희 OB	500
		류제민 메트라이프생명	50
전상우 두산인프라코어 부산	10,000	옥미화 송원식품	300
		지대연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50
강병춘 금오기전	10,000	박기호 세광산업	300
		홍승표 로이드선급협회 아시아	30

경영대 교수						상대동문회	
강성훈	230	서문식	230	옥석재	100	김보두 부산상대 동창회 회장	500
고광수	230	엄철준	230	최종열	1,000		
김진우	230	옥기울	230				

재능 기부		
조광포토피아 사진촬영	창미사 현수막	만수출판사 전단지

Editor's Comments

경영대학 소식지 <효원경영>은 여러분의 원고투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경영학과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영13 **이나현**

7호부터 이번 9호까지 총 세 번의 효원경영 편집을 담당하였는데,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효원경영에 대한 애착은 날로 갈수록 커져 효원경영의 미래 방향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의 소식지인 효원경영을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할까라는 고민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호까지 아홉 번이 발간되었고, 햇수로 따지면 5년차인 효원경영이지만 우리 단과대학을 알리는 대표 소식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존재 자체를 모르는 학우들의 수가 적지 않다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편집팀이 주도적으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노력은 계속 하겠지만, 학우 여러분, 동문 여러분, 교수진 여러분의 관심이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편집 함께해 온 현기와 이번에 새 멤버로 묵묵히 뒷받침을 해준 태일이 오빠 수고 많았고, 특히 최종서 학장님의 임기 중 4분의3이라는 시간을 함께 해왔는데 항상 반겨주시고 큰 도움이 되는 말씀들, 그리고 저희가 편집하다가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직접 나서서 해결해주신 데에 가장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 외에 김경영, 김지은, 김효정 조교 선생님들, 동문회, MBA, AMP 동문님들, 그리고 인터뷰나 수기 섭외, 단신 자료에 응해주신 학우들 또한 언제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다음 10호는 보다 좋은 콘텐츠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12 **김태일**

드디어 기다리던 효원경영 9호가 발간되었습니다. 효원경영.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의 유일한 소식지이자 경영대학 가족들의 많은 이야기를 함께할 수 있는 것에 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소중한 기회를 주신 김경영 선생님과 김지은 선생님을 비롯한 경영학과 가족분들과 제 소중한 인생 선배, 영준이 형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발에 땀이 나게 뛰어다닌 현기, 나현이에게도 항상 고맙습니다. 매번 맛있는 식사와 함께 우리 학교를 위해 그리고 저희를 위해 소중한 조언 아끼지 않으셨던 최종서 학장님께도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좋은 분들과 함께 했던 일이기에 우리 효원경영이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운대에서 강서구까지 하루 종일 지하철을 타고 인터뷰하러 갔던 날, 우리를 친절하게 맞아주시던 많은 분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귀한 도움이 있기에 오늘의 효원경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고 갈 곳이 멀지만, 지금의 애정과 감동 그대로 앞으로 10호, 50호 100호까지 부산대학교 경영인들과 함께하는 효원경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달려가는 효원경영 편집팀이 되겠습니다.



경영13 **임현기**

2015년 9월, 효원경영 9호가 나왔습니다! 2014년 3월 처음 효원경영 편집팀에 들어온 지가 아직도 생생한데 시간이 정말 빨리 흐른다는 걸 다시금 느낍니다. 효원경영은 경영대학의 소식을 전하는 유일무이의 소식지이며 이는 경영대학 구성원들 모두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자신의 글, 자신의 창작물, 경영대학 구성원에게 유익한 내용이 라면 무엇이든 효원경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편집팀은 효원경영이 부산대학교에서 가장 우수한 단과대학 소식지임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편집팀만의 노력이 아닌 구성원 모두가 열심히 참여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운 날씨에도 함께 취재하고 인터뷰하며 구슬땀을 흘린 나현이와 태일이 형에게 고생했다는 말을 전합니다. 더불어 바쁘신 와중에도 항상 웃는 얼굴로 저희를 맞아주시는 최종서 학장님께도 정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학과 사무실의 김경영, 김효정, 김지은 조교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조교 선생님과 MBA, AMP, 동문회의 여러 관계자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더 나은 소식지를 만들기 위해 끊임 없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효원경영 편집팀이 되겠습니다.





부산대학교
PUSAN NATIONAL UNIVERSITY

부산대학교 경영대학
효원경영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전화 051.510.1659~60,1678
팩스 051.581.3144
<http://biz.pusan.ac.kr>